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581-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❶ 2019년도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제주학연구센터 편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03710
9 791190 482141
ISBN 979-11-90482-14-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❶
비매품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제주학연구센터 편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581-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❶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발행일 2020년 1월 30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9154
발행인 김동전
편집인 김순자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ISBN 979-11-90482-14-1 03710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581-01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상담자료집 ❶ 2019년도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제주학연구센터 편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RI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궁금한 제주어를 해결해주는 마중물이 되길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상담 자료를 모아《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를 냅니다.

상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제주어종합상담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정말 많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3월 26일 여러 분들을 모시고 제주어종합상담실을 개소하고 상담전용 전화 〈들어봅서〉(1811-0515)를 개통할 때 가졌던 기대와 설렜던 순간순간도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인력 없이 시작한 일이라 많이 버거웠을 텐데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김순자 전문연구위원과 김미진 전문연구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자문하신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님과 제주국제대학교 오창명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이 문을 열자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제주어에 관심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도내외 여러 분과 언론의 관심도 정말 컸습니다. 전체 상담 건수 336건 중에 제주도민이

이용한 상담 내용은 259건(77.1%)이고, 도외 이용자는 75건(22.3%)이었습니다. 상담 전화 10건 중 2~3건은 도외에서 걸려왔습니다. 상담 내용도 단순히 어휘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뜻풀이, 문장, 어원, 문법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답변할 수 없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 상담 자료집은 336건의 상담 내용 중 분석이 가능한 320건의 상담 자료를 어휘(105건), 구와 문장(38건), 뜻풀이(58건), 표기(47건), 어원(5건), 기타 1·2(67건) 등 7개 분야로 나눠 문답의 형태로 꾸몄습니다.

이들 상담 자료가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제주어종합상담실이 궁금한 제주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동 전 제주연구원장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목차

- 책을 내며 4
- 일러두기 8
- 한눈에 보는 2019년 상담 통계 10

1.어휘 13
2. 구와 문장 43
3. 뜻풀이 59
4. 표기 77
5. 어원 93
6. 기타1 97
7. 기타2 115
- 찾아보기 123

일러두기

1. 이 책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이 2019년 한 해 동안 상담한 자료 336건 중에 320건을 어휘,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어원, 기타 1, 기타 2 등 7개의 분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꾸며 엮었다.

2. 상담 내용은 어휘 관련 105건(32.8%), 구와 문장 38건(11.3%), 뜻풀이 관련 58건(18.1%), 표기 관련 47건(14.7%), 어원 관련 5건(1.6%), 기타1 51건(15.9%), 기타2 16건(5%)이다.

3. 어휘 관련 105건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81건(25.3%),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24건(7.5%), '구와 문장' 38건 가운데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36건(11.2%), 제주어를 표준어로 바꿔 달라는 질문이 2건(0.6%)이었다.

4. 기타는 제주어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모아낸 것이다. 기타1은 어휘,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어원을 제외한 제주어와 관련한 질문(51건, 15.9%)이고, 기타2는 (16건, 5%) 제주어 사전 구입, 제주어 교육 등 부가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5. 상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먹어 보실래요?'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20대, 여, 충남)"처럼 질문마다 질문자의 정보를 밝혔다. 질문자의 정보는 이름, 연령대, 성별, 지역 순으로 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힌 경우는 '김○○'라고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처럼 처리하였다.

6. 거주지의 경우 '제주', '충남'처럼 정확하게 지역을 밝힌 경우에는 지역을 표기하였지만 지역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도외'라고 표기하였다. 또 제주 도민 가운데 이주민의 경우는 '제주(이주민)'처럼 구분하였다.

7. 320건의 상담 내용 중 이용객이 제주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248명(77.5%), 도외 거주자는 72명(22.5%)이다. 제주 지역 거주자 248명 중 이주민 비중은 8.9%인 22건이었다.

8.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02명(31.9%)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대 94명(29.4%), 30대 62명(19.4%), 20대 33명(10.3%), 60대 18명(5.6%), 70대 10명(3.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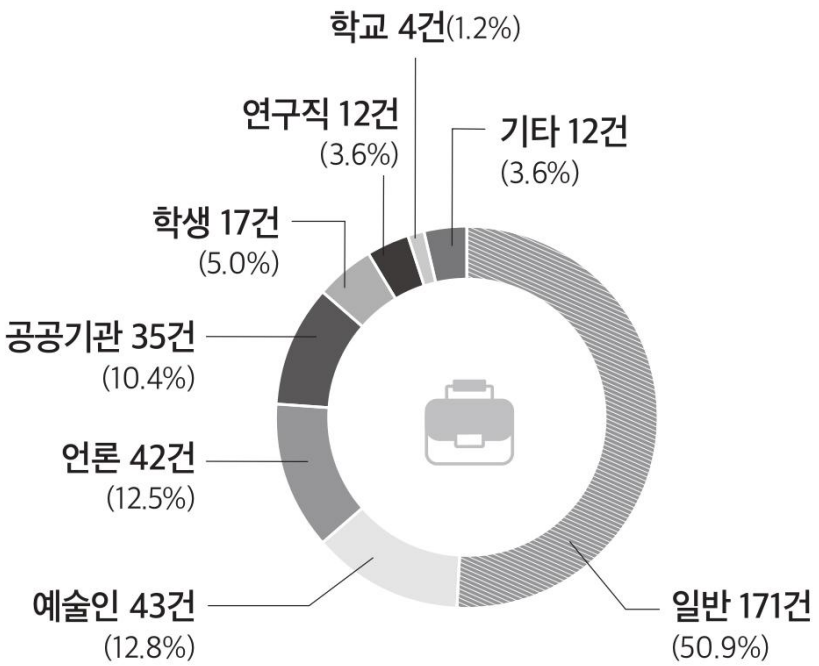
9. 성별로는 남성이 127명(39.7%), 여성이 193명(60.3%)으로 여성이 많았다.

10. 궁금한 제주어가 있으면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 전용 〈들어봅서〉전화(1811-0515)나 전자우편(jejueo0515@hanmail.net)을 이용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한눈에 보는 2019년 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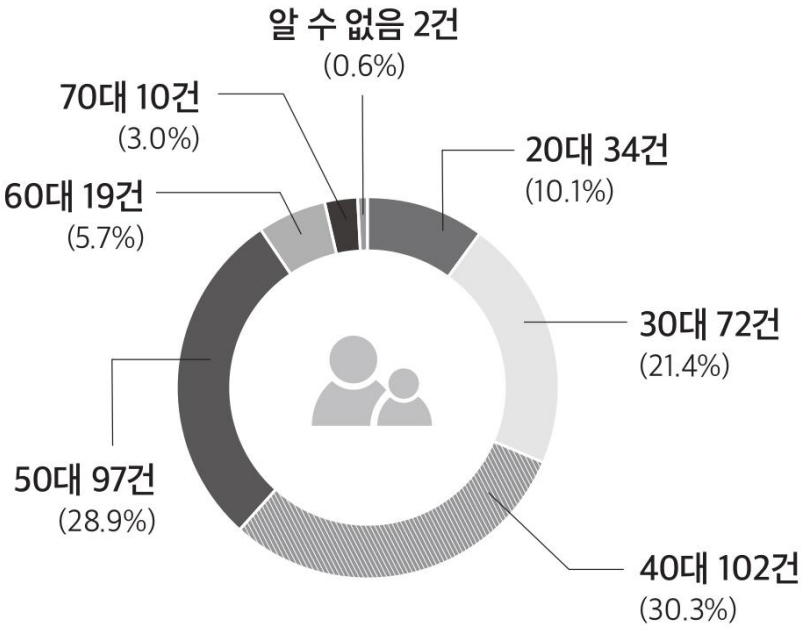
상담 기간: 2019. 1. 1.~2019. 12. 31.　　**상담 건수:** 총 336건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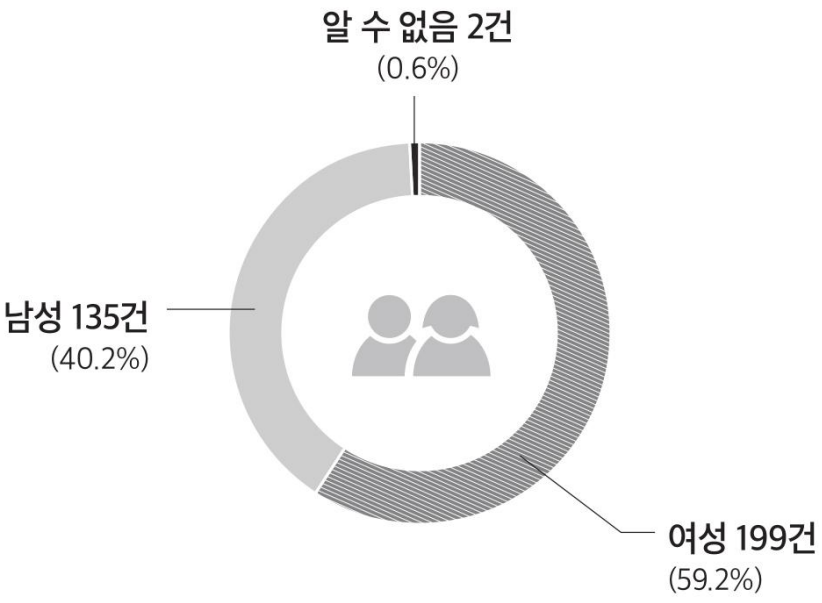


일반: 주부, 자영업자, 직장인 등을 포함
예술인: 동화작가, 작사가, 시인 등
공공기관: 금융인, 공무원 등
언론: 기자, PD, TV작가 등
기타: 그 외 특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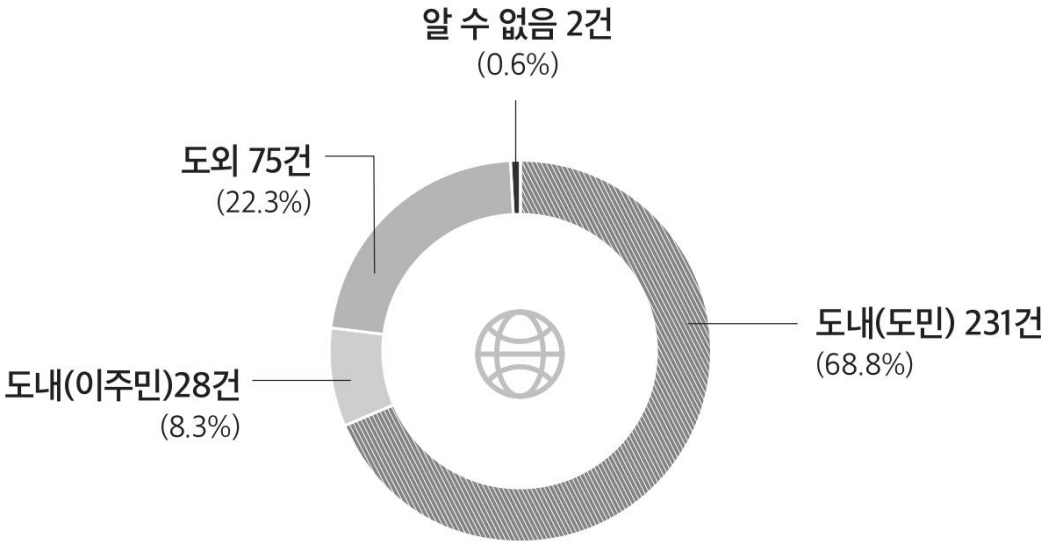
연령별


알 수 없음 2건
(0.6%)
70대 10건
(3.0%)
20대 34건
(10.1%)
60대 19건
(5.7%)
30대 72건
(21.4%)
50대 97건
(28.9%)
40대 102건
(30.3%)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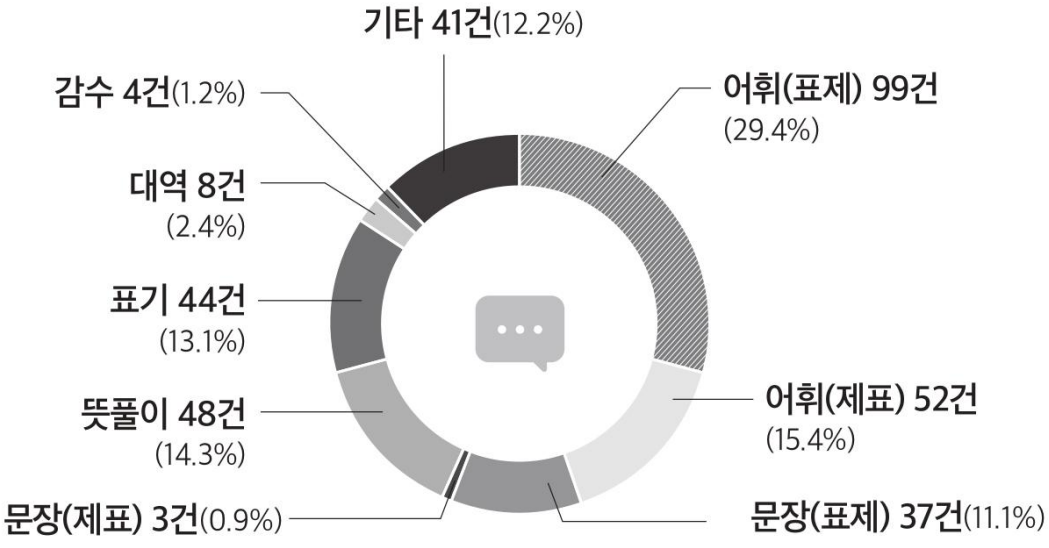

알 수 없음 2건
(0.6%)
남성 135건
(40.2%)
여성 199건
(59.2%)

거주지별



알 수 없음: 제주도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음

질문 유형



표제: 표준어를 제주어로 변환 **제표:** 제주어를 표준어로 변환

1. 어휘



표준어 ▶ 제주어

1

문 '마을'의 제주어는 뭐라 하나요? (박○○, 50대, 남, 제주)

답 '마을'의 제주어는 'ᄆᆞ을', 'ᄆᆞ슬', 'ᄆᆞ실' 등으로 나타납니다.

2

문 '동굴'을 제주말로는 뭐라고 하는지요? (최○○, 50대, 남, 제주)

답 '동굴'이라는 말은 최근에 학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고, 주로 한자어 '굴'을 씁니다. 특별히 '땅이 안으로 조금 패어 들어간 곳'인 '바위굴'인 경우는 '궤' 또는 '궤야'라고 합니다.

3

문 '고추냉이'를 제주어로 뭐라 하나요? (강○○, 40대, 남, 제주)

답 '고추냉이'는 제주에 최근 들어온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4

문 제주어로 오른쪽은 '노단짝', 왼쪽은 '그른짝'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현○○, 50대, 여, 제주)

답 오른쪽은 'ᄂᆞ단짝', 'ᄂᆞ단착', '오른착', 왼쪽은 '웬착', '웬짝'이라 했습니다.

5

문 '첫째 딸'을 제주에서는 뭐라 불렀나요? (강○○, 40대, 남, 제주)

답 '첫째 딸'을 '맏딸', '큰딸', '장녀'의 뜻으로 본다면 '큰뚤' 또는 '큰년'이라고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문 '먹구슬나무'의 제주어는 뭔가요? 'ᄆᆞᆯ쿠실낭'이라고도 했다는데 맞나요? (고○○, 70대, 남, 제주)

답 표준어는 '멀구슬나무'입니다. 지역에 따라 말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ᄆᆞᆯ쿠실낭', 'ᄆᆞᆯ쿠지낭', '먹구슬낭', 'ᄆᆞᆼ쿠지낭', '머쿠슬낭/먹쿠슬낭', '머쿠실낭/먹쿠실낭', '모쿠슬낭/모쿠실낭'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7

문 '골고루'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송○○, 70대, 남, 제주)

답 '골고루'의 제주어는 '골로로' 또는 '골호로'라고 합니다. 이 말들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골오로(18세기)〉 고로로(17세기~19세기)'에서 변한 말입니다.

8

문 '아이' 또는 '어린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김○○, 40대, 여, 도외)

답 '아이'의 제주어는 '아의', '아이', '아희'입니다. 어린아이는

'두린아이', '두린아의', '두린아희' 등으로 말합니다.

9

문 '함께라서', '함께하여'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강○○, 30대, 여)

답 '함께라서'는 제주어로 '혼디허난', '함께하여'는 '혼디허연'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0

문 양배추의 제주어가 '간낭'인가요? (○○○, 40대, 여, 제주)

답 '간낭'은 중국어 '甘蓝[gānlán]', 일본어 'カンラン(간낭: 甘藍)'에서 온 말입니다. 제주에서는 '사발ᄂᆞ물'로도 나타납니다.

11

문 '감태차'의 '감태'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20대, 여, 충남)

답 '감태'는 제주에서도 '감태'라고 합니다.

12

문 '삼촌'과 '해녀'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20대, 여, 충남)

답 제주방언 '삼춘'은 한자어 '삼촌(三寸)'에서 온 말이지만, 그 뜻은 표준어 '삼촌'과 달리 동네에 사는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도 씁니다. 이러한 것은 예전에 주로 마을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 풍습에서도 기인합니다. '해녀'는 예전 '줌녀',

'줌녜', '줌수'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해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자어 발음에서 온 말입니다.

13

문 '함께', '같이'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20대, 여, 충남)

답 '함께'는 'ᄒᆞᆫ듸/ᄒᆞᆫ디', 'ᄒᆞᆷ께', '같이'는 'ᄀᆞ치', 'ᄀᆞ찌'라고 합니다.

14

문 '감성'과 '마음'의 제주어를 알고 싶습니다. (○○○, 30대, 여, 제주)

답 '감성'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감성'이라 하면 될 것입니다. '마음'은 고유어로, 옛말 'ᄆᆞᅀᆞᆷ>ᄆᆞᄋᆞᆷ>ᄆᆞ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ᄆᆞ음', 'ᄆᆞᆷ', 'ᄆᆞ심' 등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15

문 '아프다', '싫다'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30대, 여, 광주)

답 '아프다'는 제주어에서 표준어 형태가 그대로 쓰입니다. '싫다'는 '실프다', '슬프다' 또는 '말다'로 나타납니다.

16

문 '미세먼지'를 제주어로 뭐라 하나요? (○○○, 20대, 여, 충남)

답 '미세먼지'의 '미세'는 한자어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먼지'는 제주어로 '몬지', '구둠' 등으로 나타납니다.

17

문 '초미세먼지'를 제주어로 뭐라 하나요? (○○○, 30대, 남, 제주)

답 '초미세먼지'의 '초미세'는 한자어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먼지'의 제주어는 '몬지', '구둠' 등으로 나타납니다.

18

문 '친구'의 제주어는 무엇이에요? (○○○, 30대, 남, 제주)

답 '친구'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면 됩니다.

19

문 '제주'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30대, 남, 제주)

답 '제주'는 '제주', '지주' 등으로 나타납니다.

20

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인 '너', '너희들', '자기'를 제주어로 뭐라 하나요? (○○○, 20대, 여, 제주)

답 '너'는 'ᄂᆞ', 'ᄂᆡ'라 하고, '너희'는 'ᄂᆞ네'와 '너네', '너희들'은 'ᄂᆞ네덜', '너네덜'이라고 하며, '자기'는 '자기', '이녁', '지녁'이라고 합니다.

21

문 제주어로 '오른쪽', '왼쪽'을 뭐라고 하나요? (○○○, 20대, 여, 제주)

답 '오른쪽'은 'ᄂᆞ단쪽', '오른쪽', '왼쪽'은 '웬쪽'으로 나타납니

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면 좋을 듯합니다.

· **오른짝**: ᄂᆞ단짝, ᄂᆞ단착, 오른짝, 오른착

· **오른편**: ᄂᆞ단펜, 오른펜

· **왼짝**: 웬짝, 웬착

· **왼편**: 웬펜

22

문 '포근하다'와 '아늑하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포근하다'는 '포근ᄒᆞ다', '아늑하다'는 '아도록ᄒᆞ다'라고 하면 됩니다.

23

문 '척박한 땅'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그냥 '척박ᄒᆞᆫ 땅'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

문 '버섯'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오○○, 40대, 여, 제주)

답 '버섯'의 제주어는 표준어와 같은 형태의 '버섯'이나 '버슷' 또는 '초기'로 나타납니다. '초기'는 표고버섯을 뜻하기도 합니다.

25

문 '편백나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편백나무'의 제주어는 '펜백낭'입니다.

26

문 '삼나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삼나무'의 제주어는 '숙대낭'입니다.

27

문 '다래'를 제주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다래'의 제주어는 'ᄃᆞ레'입니다. 줄기의 의미일 때는 'ᄃᆞ렛줄'이라고 합니다.

28

문 '상수리나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상수리나무'의 제주어는 'ᄎᆞ낭' 또는 '가시낭'으로 나타납니다.

29

문 '반짝반짝'의 제주어는 뭔가요? (오○○, 40대, 여, 제주)

답 '반짝반짝'의 제주어는 '벨롱벨롱', '반짝반짝', '번쩍번쩍'은 '빈찍빈찍', '펀직펀직', '핀직핀직'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30

문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봄'은 '봄', '여름'은 'ᄋᆞ름', '여름', '가을'은 'ᄀᆞ슬', 'ᄀᆞ실', 'ᄀᆞ을', '겨울'은 '저슬', '저실', '저을'이라고 합니다.

31

문 '천천히'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천천히'의 제주어는 '츤츤이', '천천이'입니다.

32

문 '혼자'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오○○, 40대, 여, 제주)

답 '혼자'의 제주어는 '혼자', '혼차' 등으로 나타납니다.

33

문 '밖', '바깥'의 제주어를 뭐라고 하나요? (김○○, 40대, 여, 제주)

답 '바깥채'를 '밧거리' 또는 '박거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밖'은 '밧' 또는 '박'으로 말합니다. '바깥'의 제주어는 '바깟' '베껏', '베끼' 등으로 나타납니다.

34

문 '편편하다'의 제주어는 뭔가요? 디자인 제품에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용례가 필요합니다. (김○○, 40대, 여, 제주)

답 '편편하다'의 제주어는 '펜펜ᄒᆞ다' 또는 '멘짝ᄒᆞ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펜펜헌 ○○', '멘짝헌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5

문 '뻘쭘하다'의 제주어는 뭔가요? (○○○, 40대, 여, 제주)

답 '뻘쭘하다'는 어색하고 민망하다는 것을 속되게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어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36

문 '모자'의 제주어가 '페렝이'가 맞나요? (○○○, 30대, 여, 제주)

답 '모자'는 한자 '帽子(모자)'에서 온 것입니다. '子(자)'의 옛 한자음이 'ᄌᆞ'여서 '모ᄌᆞ'라고 했는데, 소리가 변하여 '모저', '모자'라고도 합니다. '페렝이'는 표준어 '패랭이'에 대응하는 어휘로 보면 됩니다. 한편 '밀짚모자'를 '밀낭퍼렝이', '밀낭페렝이', '밀찍페렝이' 등으로 나타나는데, 줄여서 '페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자'='페렝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페렝이'는 표준어 '패랭이'에 해당하는 어휘입니다.

37

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연결하기 위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어깨동무'가 좋을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깨동무'의 제주

어는 뭔가요? (○○○, 40대, 남, 제주)

답 '어깨동무'는 그 자체가 좋은 어휘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38

문 '감자'를 제주에서 말할 때에, '씨'를 붙여서 '씨감자'라고 하나요? (○○○, 30대, 남, 도외)

답 '감자'의 제주어는 '지슬', '지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씨감자'는 제주어로 '씨지슬', '씨지실'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씨로 쓰이는 고구마는 '씨감저'라고 합니다.

39

문 작품을 만드는 중 다음을 제주어로 변환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 20대, 여,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모퉁이	모퉁이
빙빙 돌다	빙빙 돌다
수줍다	수좁다, 수집다
세상	세상, 싀상, 시상
커다란	큰큰ᄒᆞᆫ
무엇	무시거, 무신거
기다리다	지드리다, 지들리다
울다	울다

표준어	제주어
돋아나다	돋아나다
붉다	붉다
겨울	저슬, 저실
홍시	홍실
동백꽃	돔박고장
노랑	노랑
달리다	들리다, 들다
멀다, 먼	멀다, 먼
꽃이 피다	꼿 피다, 고장 피다, 곳 피다
곱다	곱다
고운	곤, 곱닥흔
그리움	그리움
사랑	ᄉᆞ랑, 사랑
돌아오다	돌아오다
숨기다	곱지다, 숭기다, 숭키다
메아리	산울림
보셨습니까?	봅데강?

40

문 비자림 해설 중에 모르는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동산 위' 또는 '언덕 위'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 60대, 남, 제주)

답 '동산 위'는 '동산 우의/동산 우이', '동산 우티'로 쓰면 됩니다. '위'는 제주어로 '우', '우의/우이', '우틔/우티'라고 합니

다. 따라서 '언덕 위'는 '언덕 우의', '엉덕 우의', '엉덕 우틔'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

문 '친정엄마'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 30대, 여, 제주)

답 '친정엄마'는 '친정어멍' 또는 '당어멍', '원어멍', '친어멍'이라고 하면 됩니다.

42

문 '무지개'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무지개'는 지역에 따라 '항고지', '황고지', '상고지' 등으로 나타납니다.

43

문 '울긋불긋하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울긋불긋하다'는 표준어를 그대로 써서 '울긋불긋허다'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색깔이 한데 어우러져 요란한 모양'이라고 하면 '와자자'를 써서 '와자자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4

문 '아늑하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아늑하다'의 제주어는 '아도록ᄒᆞ다'입니다.

45

문 '달콤하다'와 '새콤하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 30대, 남, 제주)

답 '달콤하다'는 '돌코롬ᄒᆞ다', '새콤하다'는 '세큼지다', '세큼허다'라고 합니다.

46

문 '외할머니'의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30대, 여, 제주)

답 호칭어는 '웨할머니', '웨할무니'이고, 지칭어는 '웨할망'이라고 합니다.

47

문 '조문'의 제주어는 뭔가요? (○○○, 50대, 여, 제주)

답 '조문', '고견', '궤견', '고렴', '고애'라고 합니다.

48

문 '문틈'의 제주어는 무엇입니까? (○○○, 30대, 여, 경기)

답 '문트멍'이라고 합니다.

49

문 '아름답다'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40대, 여, 도외)

답 '아름답다'는 표준어형과 같습니다. 비슷한 뜻으로 '곱닥허다(곱다랗다)'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

문 '행복하다'의 제주어는 뭔가요? (○○○, 40대, 여, 도외)

답 '행복하다'는 '행복ᄒᆞ다', '행복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1

문 '사랑하다'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 40대, 여, 도외)

답 '사랑하다'의 제주어는 '사랑ᄒᆞ다', '사랑허다', 'ᄉᆞ랑허다' 등으로 쓰면 됩니다. 한편 '괴다(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하다)'의 제주어는 '궤다', '궤우다', '궵다'라고 합니다.

52

문 '가족'의 제주어는 뭔가요? (○○○, 40대, 여, 도외)

답 '가족'은 표준어형과 같이 씁니다.

53

문 '여행'의 제주어는 뭔가요? (○○○, 40대, 여, 도외)

답 '여행'은 표준어형과 같이 씁니다.

54

문 '모임'의 제주어는 뭔가요? (○○○, 50대, 여, 제주)

답 '동아리', '접', '제'라고 합니다.

55

문 '같이', '함께', '모두'를 뜻하는 제주어가 뭔가요?
(○○○, 40대, 여, 서울)

답 'ᄒᆞᆫ듸/ᄒᆞᆫ디'입니다. 같이는 'ᄀᆞ찌', 'ᄀᆞ치', '함께'는 'ᄒᆞᆫ듸/ᄒᆞᆫ디', '모두'는 'ᄆᆞᆫ' 또는 'ᄆᆞᆫ딱'으로 쓸 수 있습니다.

56

문 '옛날'의 제주어는 뭔가요? (최○○, 40대, 남, 제주)

답 '옛날'의 제주어는 '엿날', '옛날' 등으로 나타납니다.

57

문 '드세요'의 제주어는 뭔가요? (최○○, 40대, 남, 제주)

답 '먹읍서', '드십서' 정도로 하면 될 듯싶습니다.

58

문 '깨끗하다'의 제주어는 뭔가요? (최○○, 40대, 남, 제주)

답 'ᄀᆞᄎᆞᆯᄒᆞ다', 'ᄀᆞ콜허다'입니다.

59

문 다음을 제주어로 고쳐 주세요. (윤○○, 20대, 여,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길	질
살다	살다
살러 가다	살레 가다
개구리라고 놀리다	가가비엔 놀리다 가게비엔 놀리다 갈게비렌 놀리다
빗소리	빗소리
자장가	자장가

60

문 '매달리다'의 제주어가 뭔가요? (윤○○, 20대, 여, 제주)

답 '매달리다'의 제주어는 '들아지다'입니다.

61

문 '산'의 제주어는 '오름'이 맞나요? (윤○○, 20대, 여, 제주)

답 '산'은 '산' 또는 '메/미'라고 하고, '오름'은 '한 번의 분화 활동으로 만들어진 자그마한 화산'을 말합니다. 달리 '오름'이라고 합니다.

62

문 '우그러지다'의 제주어가 뭔지 알려주세요. (윤○○, 20대, 여, 제주)

답 표준어와 같은 형태의 '우그러지다'로 하면 됩니다.

63

문 '찌그러지다'의 제주어가 뭔지 알려주세요. (윤○○, 20대, 여, 제주)

답 '멜라지다', '멜싸지다'입니다.

64

문 '어리석다'의 제주어는 뭔가요? (○○○, 30대, 여, 제주)

답 표준어와 같은 '어리석다'입니다.

65

문 '외롭다'의 제주어는 뭔가요? (○○○, 30대, 여, 제주)

답 '외롭다'는 표준어 형태와 같은 '외롭다'인데, '괴' 발음이 항상 복모음 '웨'로 발음되기 때문에 '웨롭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66

문 '걱정하다'의 제주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 50대, 여, 도외)

답 '저들다', 'ᄌᆞ들다'입니다.

67

문 '밭'의 제주어가 궁금해요. (○○○, 50대, 여, 도외)

답 '밭'의 제주어는 '밧'이라 합니다. 다만 모음이나 ㄹ 끝음을 가진 말과 합쳐질 때는 '자리왓', '몰레왓' 등과 같이 실현되지만, 단일어로 '왓'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68

문 '반딧불'의 제주어를 알고 싶습니다. (○○○, 40대, 남, 제주)

답 지역에 따라 '불란지', '불란듸', '불한지', '불한듸'라고 합니다.

69

문 '만큼'과 '자주'의 제주어를 알고 싶습니다. (박○○, 20대, 남, 제주)

답 조사 '만큼'의 제주어는 '만이'입니다. '하늘만이 땅만이(하늘만큼 땅만큼)', '철수만이 키가 커시민(철수만큼 키가 컸으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의 제주어는 '자조', 'ᄌᆞ조', 'ᄌᆞ주', 'ᄌᆞ지'입니다.

70

문 다음을 제주어로 알려주세요. (박○○, 2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개미	게미, 게에미, 게여미, 게염지
벌	벌
나비	나비
거미	거미, 게미, 거믜

표준어	제주어
개구리	가개비, 개개비, 개고리, 골개비
새	새, 생이
비둘기	비둘기
상어	상어, 상에, 상의
원숭이	납, 원셍이, 잔나비, 즌나비, 즌내비
곰	곰
고래	고레, 고레사니
뱀	버염, 베미, 베염
개	개
구름	구룸, 구름

71

문 '파이팅'에 해당하는 제주어가 있나요? (임○○, 30대, 남, 도외)

답 정확히 일치하는 어휘는 없습니다. 표준어로 '힘 내자'라고 한다면 제주어로 '심 내라', '심 냅서'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72

문 '가장자리'를 뜻하는 제주어는 무엇인가요? (○○○, 40대, 여, 제주)

답 '가셍이', '바우', '바위', '깍' 등이 있습니다.

73

문 '연구자'를 제주어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김○○, 50대, 여, 제주)

답 '연구자'는 한자어여서 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도 '연구자'라

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제주적인 느낌이 나게 하려면 '연구하는 사름', '연구ᄒᆞ는 사름' 정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74

문 '소망', '희망'을 뜻하는 제주어가 있을까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소망', '희망'은 한자이기 때문에 그냥 '소망', '희망'하면 됩니다.

75

문 '부터', '까지' 역할을 하는 제주어 조사가 궁금합니다. '부터'는 '부텀', '까지'는 'ᄁᆞ장'인 걸로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 20대, 남, 제주)

답 '부터'는 '부떠', '부텀'이 있고, '까지'는 'ᄁᆞ장', 'ᄁᆞ지', '꺼지', '꺼장'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76

문 '에', '에서' 역할을 하는 조사의 제주어와 제주에서 쓰이는 다른 조사들을 알고 싶습니다. (○○○, 20대, 남, 제주)

답 '에(장소)'는 '디(듸)', '이', '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밧디(듸) 감수과?(밭에 가십니까?)'처럼 사용합니다. '에서'는 '서'처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왐시니?(어디에서 오니?)'처럼 쓰면 됩니다.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현평효·강영봉의 《제

주어 조사·어미사전》(2011)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

문 '-(할)게요'의 제주어는 무엇이에요? (정○○, 50대, 여, 도외)

답 예를 들어 '그 집에 살게요'와 같은 경우는 '살게요'가 장차 다가온다는 의미이므로, '~쿠다'가 어울립니다. '그 집에 살게요'는 '그 집(이) 살쿠다'로 표현하면 됩니다.

78

문 '소망', '희망'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달리 없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의미의 '바라다', '원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있을까요? 또한 '이루어지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다'라는 문장을 제주어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바라다' 는 '바레다' 또는 'ᄇᆞ레다', '원하다'는 '원ᄒᆞ다'로 쓸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다'는 '이루어졋수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다'는 'ᄇᆞ레는 것이 이루어졋수다'처럼 제주어 문장으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79

문 '미리', '앞서다', '먼저'에 대응하는 제주어를 알고 싶습니다.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미리'는 '미리', '미르세', '미릇', '앞서다'는 '앞사다', '앞ᄉᆞ

다', '먼저'는 '먼저', '믄저', '믄처', '믄첨'입니다.

80

문 '즐기다'와 '누리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를 알려 주세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즐기다'는 '즐기다', '누리다'는 '누리다' 표준어와 같은 어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81

문 '단체', '협회'를 가리키는 제주어가 있나요? (○○○, 50대, 여, 제주)

답 '단체', '협회'를 가리키는 제주어는 따로 없습니다. 굳이 바꿔 쓰고 싶으면 우리말 '동아리'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어 ▶ 표준어

1

문 '소도리'를 표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정○○, 70대, 남, 제주)

답 '말전주'라고 합니다. 남이 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함을 뜻합니다.

2

문 'ᄆᆞ작풀'이 표준어 '쇠무릎'인가요? (오○○, 50대, 남, 제주)

답 'ᄆᆞ작풀'의 표준어는 '마디풀'입니다. '쇠무릎'의 제주어는 '물ᄆᆞ작쿨'입니다.

3

문 '고고리'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 30대, 여, 도외)

답 '고고리'의 표준어는 '이삭'입니다.

4

문 '대우리'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 30대, 여, 도외)

답 '대우리'의 표준어는 '귀리'입니다.

5

문 '베지근하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송○○, 70대, 남, 제주)

답 '베지근하다'는 표준어로 대역할 적당한 어휘가 없습니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에 보면,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6

문 '코시롱허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송○○, 70대, 남, 제주)

답 '코시롱허다'는 표준어로 '고소하다'입니다.

7

문 '츰말로'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이○○, 30대, 여, 제주)

답 '츰말로'의 표준어는 '참말로'입니다.

8

문 '주왁주왁허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강○○, 40대, 남, 제주)

답 '주왁주왁허다'의 표준어는 '기웃기웃하다'입니다.

9

문 '감수광?'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표○○, 40대, 남, 도외)

답 '감수광?'을 표준어로 바꾸면, '가세요?', '가십니까?'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문 제주어 '퍼뜰퍼뜰'이 표준어로 '나풀나풀'이 맞나요?

(○○○, 여, 40대, 제주)

답 제주어 '퍼뜰퍼뜰'의 표준어는 '나풀나풀', '나불나불'입니다. 물체가 바람에 가볍게 날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1

문 제주어 '울랑울랑'의 표준어는 '두근두근'이 맞나요?
(○○○, 여, 40대, 제주)

답 '울랑울랑'은 표준어 '울렁울렁'에 대응하는 어휘입니다. '두근두근'의 제주어는 '틀랑틀랑' 또는 '탕탕'이라고 합니다.

12

문 '굽갈르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 여, 40대, 제주)

답 '굽갈르다'의 표준어는 '편가르다', '편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전적으로는 "경계를 긋거나 몫을 나누다", "사리를 분별하여 한계를 구분 짓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13

문 제주어 '눕뜨다'의 표준어는 무엇인가요? (김○○, 여, 30대, 제주)

답 '눕뜨다'의 표준어는 '냅뜨다'입니다.

14

문 동생이 어릴 때 '와살풍'에 걸렸었습니다. 이 '와살풍'의 표준어가 '구안와사'가 맞습니까? (○○○, 여, 40대, 제주)

답 '와살풍'의 표준어는 '구안와사'입니다.

15

문 제주어 '벨아벨'의 표준어는 뭔가요? (○○○, 여, 30대, 제주)

답 '벨아벨'의 표준어는 '별의별'입니다.

16

문 '오소록ᄒᆞ다'의 표준어는 뭔가요? (○○○, 여, 40대, 제주(이주민))

답 '오소록ᄒᆞ다'는 '구석지고도 으슥하다'는 뜻을 지닌 제주어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는 없는 듯합니다.

17

문 '미녕옷'의 표준어는 뭔가요? (○○○, 여, 30대, 제주)

답 '미녕옷'의 표준어는 '무명옷'입니다.

18

문 '두지'의 표준어로 뭔가요? (○○○, 여, 30대, 제주)

답 '두지'는 표준어 '뒤주'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뒤주'는 나무로 만든 쌀을 보관하는 함입니다.

19

문 '너우누에'의 표준어는 뭔가요? (○○○, 여, 30대, 제주)

답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우누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너 오누이'를 잘못 들으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누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0

문 '불껑'의 표준어는 뭔가요? (조○○, 여, 40대, 제주)

답 '불껑'의 표준어는 '재'입니다.

21

문 '불치'의 표준어는 뭔가요? (조○○, 여, 40대, 제주)

답 '불치'의 표준어는 '재'입니다.

22

문 '출구덕'의 표준어는 뭔가요? (○○○, 여, 60대, 제주)

답 '출구덕'은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입니다. 주로 나물을 캐거나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딸 때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입니다.

23

문 송당 할머니가 하는 말인데요, '개꽝낭', '북닥낭', '비주기낭'의 표준어를 알려주세요? (조○○, 여, 40대, 제주)

답 표준어로 바꾸면, '개꽝낭'은 '꽝꽝나무', '북닥낭'은 '예덕나무', '비주기낭'은 '비쭈기나무'를 말합니다.

24

문 ‘식게’의 표준어는 뭔가요? (○○○, 여, 40대, 제주(이주민))

답 ‘식게’의 표준어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제주어는 ‘식게’ 외에도 ‘제ᄉᆞ’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2. 구와 문장



표준어 ▶ 제주어

1

문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제주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 40대, 여, 서울)

답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굳이 제주어로 변형하여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문 '좋은 날 보내세요'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정○○, 40대, 남, 제주)

답 '좋은 날 보내십서', '좋은 ᄒᆞ루 뒈십서양'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문 '~하기 위해'를 제주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박○○, 20대, 남, 제주)

답 '~ᄒᆞ젠 ᄒᆞ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 위해'를 제주어로 바꾸면 '공부ᄒᆞ젠 ᄒᆞ영'이 됩니다.

4

문 '꽃 활짝 피우고 향기 가득한 제주', '꽃 활짝 피우고 향기 함

께 누리는 제주'를 제주말로 바꿔 주세요. (고○○, 60대, 남, 제주)

답 '꽃 활짝 피우고 향기 가득한 제주'는 '고장 활짝 피우곡 향기 ᄀᆞ득헌 제주'라고 바꾸고, '꽃 활짝 피우고 향기 함께 누리는 제주'는 '고장 활짝 피우곡 향기 혼디 누리는 제주' 정도로 바꾸면 좋을 듯합니다.

5

문 '한번 먹어(드셔) 보세요'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20대, 여, 충남)

답 '한번 먹어(드셔) 보세요'를 표준어로 바꾸면 '혼번 먹어(드셔) 봅서'입니다.

6

문 '먹어 보실래요?'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20대, 여, 충남)

답 '먹어 보젠마씨?' 또는 '먹어 보젠마씸?', '먹어 보쿠과?' 정도면 되겠습니다.

7

문 '집에 있을래.'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30대, 여, 광주)

답 '집이 잇젠' 또는 '집이 싯젠' 정도면 좋겠습니다.

8

문 ‘달콤하고 맛있다’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50대, 남, 제주)

답 ‘ᄃᆞᆯ코롬ᄒᆞ고 맛좋다’, ‘ᄃᆞᆯ코롬ᄒᆞ고 맛잇저’ 정도면 좋겠습니다.

9

문 ‘즐겁게 같이 가게’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30대, 여, 제주)

답 ‘즐겁게 ᄀᆞ치 가게’로 바꾸면 됩니다.

10

문 ‘환영합니다’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30대, 남, 제주)

답 ‘환영ᄒᆞ염수다’, ‘환영헴수다’ 정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11

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테이크 아웃’의 의미인 ‘들고 나가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다’ 와 같은 말을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30대, 남, 제주(이주민))

답 ‘들고 나가다’는 ‘들렁 나가다’,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는 ‘간펜ᄒᆞ게 ᄀᆞ졍 뎅기다’,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걸어뎅기멍 먹을 수 잇어.’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

문 '길이 울퉁불퉁한'을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40대, 여, 제주)

답 '길이 울퉁불퉁한'을 표준어로 옮기면 '질이 어글락다글락흔'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

문 '공공기관 고액 연봉 제한'을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공공기관 고액 연봉 제한'이 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 제주어로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제주어로 바꾸고 싶다면 '돈 하영 받는 공공기관 사름덜 연봉 제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문 '배부른 고양이 모습 빗대어서'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배불른 고넹이 서늉(모냥) 숭틀엉'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문 드라마 대본 작업 중에 제주어가 궁금해서 메일 드립니다. 다음의 문장을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김○○, 4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제 이름은 ○○예요.	나 일름은 ○○이우다.
이 삼촌은 진짜 잘생겼고, 이 형은 꼭 여자처럼 예뻐요.	이 삼춘은 진짝 잘생겻고, 이 성은 똑 여ᄌᆞ치룩 곱수다.
보여줄 게 있어요. 따라 오세요.	베와줄 게 싯수다. ᄯᅡ라 옵서.
여긴 내 비밀 장소예요. 이건 내 보물들이구요. 형들이 살던 곳에도 바다가 있어요?	이딘 나 비밀 장소우다. 이건 나 보물덜마씸. 성덜 살단 디도 바당 잇수과?
바다 없는 곳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탁 트인 바다를 봐야 살맛이 나죠.	바당 엇인 디서 답답허영 어떵 살아마씨? 탁 터진 바당을 봐사 살맛이 나주.
엄마가 찾겠어요. 빨리 가요.	어머니가 춪으쿠다. 재게 글읍서.
아니예요. 그건 바다의 신이 도우신 겁니다. 여기로 온 것도 다 바다의 뜻이지요.	아니우다. 그건 바당 신이 도웬 거우다. 이딜로 온 것도 다 바당 뜻이주마씨.
육지와 떨어져 있지만 여기 사람들도 애국심은 같아요.	육지영 떨어졍 잇주마는 이디 사름덜토 애국심은 ᄀᆞ타마씸.
저희는 믿어요. 부디 두 분도 몸조심하세요.	우린 믿엄수다. 부디 두 분도 몸조심헙서예.
이 줄을 잡아요!	이 베 심읍서!
젖은 옷은 말려드릴게요.	젖인 옷은 ᄆᆞᆯ려 주쿠다.

표준어	제주어
살려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살려 줍서. 제발 살려 줍서.
엄마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가 하영 아파마씨.

16

문 '제주도 자전거 한 바퀴'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조○○, 60대, 여, 제주)

답 '제주도 자전거 한 바퀴'를 표준어로 바꾸면 '제주도 ᄌᆞ영게/ᄌᆞ전게로 ᄒᆞᆫ 바쿠'입니다.

17

문 '호들갑을 떨지 마라'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50대, 여, 제주)

답 '호들갑을 떨지 마라'를 표준어로 바꾸면 '호들갑 털지 말라'입니다.

18

문 '오늘의 태양을 전송하라.'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50대, 여, 제주)

답 '오널 헤를 전송ᄒᆞ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

문 '무엇이겠는가?'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50대, 여, 제주)

답 '무엇이겠는가?'를 표준어로 바꾸면 '무신거커니?'입니다.

20

문 '향기로운 무늬'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50대, 여, 제주)

답 '향기로운 무늬'를 따로 제주어로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21

문 '풍성한 인생 화폭'을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50대, 여, 제주)

답 '풍성ᄒᆞᆫ 인생 화폭'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22

문 행사에서 사용할 '즐거우셨나요?'와 '한 잔 하러 가시죠.'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30대, 남, 제주)

답 '즐거우셨나요?'는 '즐거웁디가?/즐거웁디강?', '한 잔 하러 가지죠.'는 'ᄒᆞᆫ 잔 ᄒᆞ레 가게마씸.', 'ᄒᆞᆫ 잔 ᄒᆞ레 갑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23

문 '사랑스런 하루'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40대, 여, 도외)

답 '사랑스런 ᄒᆞ루', '사랑스런 ᄒᆞ를'으로 바꾸면 됩니다.

24

문 '오늘 행사에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최○○, 40대, 남, 제주)

답 '오널 행사에 아이덜이 나왕 놀래 불르곡 춤 췻수다.'로 바꾸면 됩니다.

25

문 제주어로 문학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정○○, 50대, 여,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엄마, 이리 와보세요. 아버지가 피똥을 쌌어요.	어머니, 이레 와봅서. 아버지가 피똥 쌋수다.
너희 아버지 이제 아무래도 죽으려나보다.	느네 아방 이제 아멩헤도 죽젠 허는 셍이여.
활처럼 등이 굽은 엄마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선다.	활치록 등이 굽은 어머니가 아버지 구들로 들어산다.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왕
죽으려나보다.	죽젠 허는 셍이여.

26

문 '살만큼 살았는데 아프면 죽으면 되지.'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정○○, 50대, 여, 도외)

답 '살만이 살아신디 아프민 죽으민 뒈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7

문 ‘던지지 마세요’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정○○, 50대, 여, 도외)

답 ‘던지지 마세요’를 제주어로 바꾸면 ‘데끼지 맙서’입니다.

28

문 ‘이럴 바에 독이라도 품어야 하나.’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정○○, 50대, 여, 도외)

답 ‘영홀 거민 독이라도 쿰어사 ᄒᆞ나’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29

문 ‘터져버리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을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정○○, 50대, 여, 도외)

답 ‘터져불지 아녀민 죽어부는 것’입니다.

30

문 ‘응원하라’의 제주어가 뭔가요? (최○○, 40대, 남, 제주)

답 ‘응원ᄒᆞ라’ 또는 ‘응원허라’입니다. ‘응원’이 한자이기 때문에 달리 바꿀 제주어가 없습니다.

31

문 ‘제주에 풍년이 들게 도와준 농사의 신-자청비’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현○○, 50대, 남, 제주)

답 ‘제주에 풍년 들게 도웨준 용시의 신-ᄌᆞ청비’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

문 '꼼짝 마라'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 30대, 여, 도외)

답 '꼼짝 말라'라고 하면 됩니다.

33

문 브이알(VR) 게임에 제주어 대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다음의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꿔 주세요. (이○○, 30대, 남, 도외)

답

표준어	제주어
왔냐?	와시냐?
얼른 들어가자.	혼저 들어글라.
집에 돌아왔으니까 정낭을 열어야지.	집이 돌아와시난 정낭을 열어사주.
네가 한 번 열어봐.	느가 혼 번 올아보라.
방금 돌아왔는데 또 나가라고?	곳사 돌아와신디 또시 나가렌?
밖에 나가서 뭐 하려고?	베끗디 나강 무신거 허젠?
정낭 몰라? 저기 나무막대기 세 개 있는 거 말이야.	정낭 몰르크냐? 저디 낭막뎅이 시 개 이신 거 말이여.
잘했다. 바로 일하러 가야지. 감귤나무 있는 데로 와라.	잘헷저. 곧 일허레 가사주게. 감귤낭 이신 디레 오라.

표준어	제주어
귤이 많이 열렸네. 얼른 따서 담아야겠네.	귤 하영 올앗저이. 확 탕 담아 사키여.
가장 좋은 것은 왼쪽에, 안 좋은 건 오른쪽에 담아.	질 좋은 건 웬착에, 안 좋은 건 ᄂᆞ단착에 담으라이.
그 좋은 걸 거기다 집어넣어?	그 좋은 걸 그레 담아놤시냐?
좀 있다 꺼내서 다시 넣어라.	ᄒᆞ꼼 잇당 꺼넹 ᄃᆞ시 놓라.
그건 네가 먹으려고 거기 집어넣은 거지?	그건 느가 먹젠 그디 담아놓은 거주이?
네 덕분에 금방 끝났네. 자! 다음 일하러 가야지.	느 덕분에 금방 끝낫저. 자! 다음 일허레 가사주.
돗통시에 먹이 좀 갖다줘라.	돗통시에 것 ᄒᆞ꼼 앗당주라.
돼지한테 당근을 주면 돼.	도새기신디 당근 주민 뒈어.
뭐하니? 그러다 돼지 굶어죽겠다.	무신거 허멘? 경허당 도새기 굶엉죽으켜.
잘도 먹네.	잘도 먹엄신게.
이제 좀 쉬었다가 물질하러 가야지.	이제 ᄒᆞ쏠 쉬엇당 물질허레 가사주게.
목마른데 물허벅 좀 가져와 봐.	목ᄆᆞᆯ른디 물허벅 ᄒᆞ쏠 ᄀᆞ정 와보라.
아까 내가 들고 왔던 거 있잖아.	ᄀᆞᆺ사 나가 들렁 와난 거 시녜이.
백록담에 가서 물 퍼 오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백록담에 강 물 펑 왐시냐? 무사 영 오래 걸렴시니?

표준어	제주어
역시 일하고 나서 먹는 물맛이 최고네.	역시 일헤낭 먹는 물맛이 췌고여.
이제 일 나가야 하니까 물질 도구 좀 챙겨와라.	이제 일 나가사 허난 물질 도구 ᄒᆞ꼼 챙경오라.
그건 빗창이란 건데 전복 캘 때 사용하지.	그건 빗창이렌 ᄒᆞ는 건디 전복 텔 때 사용허주게.
바위에 달라붙어있는 성게나 문어를 잡을 때 쓰는 갈고리야.	바위에 ᄃᆞᆯ라부떵 이신 구살이나 물꾸럭 잡을 때 쓰는 까꾸리여.
물안경을 쓰지 않고 잠수하면 눈이 따가워.	눈 쓰지 아녕 숨비민 눈이 따가와.
다 가져왔네. 물질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다 아경와신게. 물질 갓당 올 거난 지드렴시라.
잘했다. 오늘 저녁은 통닭이다.	잘헷저. 오널 ᄌᆞ냑은 통닭이여.
오자마자 일해서 피곤했을 텐데 수고했다.	오자마자 일허영 피곤헤실 건디 수고헷저.
뭍에서는 글공부만 했나봐.	육지선 글공부만 헌 셍이여.

34

문 '꿈을 꾸어요'를 제주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정○○, 50대, 여, 도외)

답 ①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의 경우 '꿈 봄수다'라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꿈꾸다'를 제주어로 '꿈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② 희망을 뜻하는 '꿈'의 경우에는 '꿈 꿤수다', '꿈 꾸주마씨'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5

문 '발을 동동 구르다'를 제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정○○, 50대, 여, 도외)

답 '발 동동 굴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어에서 목적어 '-을/-를'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6

문 다음은 청탁 금지법 교육과 관련한 표어입니다. 제주어로 변환해 주세요. (용○○, 40대, 남, 제주)

답

표준어	제주어
주지도 받지도 말고 당당하게!	주지도 말곡 받지도 말곡 당당ᄒᆞ게!
버리는 욕심 생기는 기쁨	데끼는 욕심 생기는 기쁨
서로 사랑하며 배려합시다.	서르 사랑ᄒᆞ멍 배려ᄒᆞ게마씸
단호한 거절, 달콤한 청렴	단호한 거절, 둘코롬ᄒᆞᆫ 청렴

제주어 ▶ 표준어

1

문 '오몽허지 마라'를 표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30대, 여, 도외)

답 '오몽허지 마라'를 표준어로 바꾸면, '움직이지 마라' 또는 '거동하지 마라'입니다.

2

문 KBS라디오를 듣는데, '삼춘들 ᄌᆞ끗듸 느량 이시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슨 뜻인가요? (○○○, 40대, 남, 도외)

답 표준어로 바꾸면, '삼촌들 곁에 늘 있겠습니다.'입니다.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3. 뜻풀이



1

문 '뒷무뚱'의 의미가 궁금해요. (정○○, 50대, 여, 도외)

답 '뒷무뚱'은 '집의 뒤쪽 문 앞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2

문 '베려보다'를 '바라보다'라는 의미로 찾았는데 혹시 이 '바라보다'가 '바람을 담아 기다려보다'라는 의미인지 그냥 지켜보는(see)의 의미인지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정확히는 '보다[見]'를 '베리다'라고 합니다. '바라다'의 제주어는 '바레다', 'ᄇᆞ레다'인데, 그 뜻을 보면, '①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다. ②떨어져 있는 곳을 건너다보다. ③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지켜보다.'로 다양합니다. '바라보다'의 제주어는 '바레보다', '바레여보다', 'ᄇᆞ레보다', 'ᄇᆞ레여보다'처럼 나타납니다.

3

문 '둘랑이다'를 '두근거리다'의 의미로 찾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두근거리다', '일렁이는 봄기운에 가슴이 두근거리다'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두근거리다'의 제주어는 '둘랑둘랑ᄒᆞ다', '툴랑툴랑ᄒᆞ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ᄆᆞ음이 둘랑둘랑ᄒᆞ염저'처럼 쓰면 됩니다.

4

문 '저레 고칩서'의 '고칩서'는 무슨 뜻인가요? (고○○, 60대, 남, 제주)

답 이 경우 '고칩서'는 '고쳐서라' 즉, '비켜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고쪄 삽서', '고쳐 삽서', '고쪄 사라', '고쳐 사라'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레 고칩서'는 '저리로 비켜 서세요.'의 의미입니다.

5

문 제주어에서 '지난봄'의 의미로 '넘은봄'을 쓰나요?
(이○○, 50대, 남, 서울)

답 '지난봄'을 제주어로 '넘은봄'이라고 합니다.

6

문 제주어 '요지금'은 무슨 뜻인가요? (양○○, 40대, 여, 제주)

답 '요지금'은 '요조금'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로 바꾸면 '요즈음'이라는 뜻입니다.

7

문 '게들레기'가 무슨 뜻인가요? (홍○○, 50대, 여, 제주)

답 '게들레기'는 고둥 따위에 게가 들어간 것을 말하며, 표준어로는 '소라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게드레기', '기드레기'라고 하며, '놈의집살이'라고도 합니다.

8

문 '서넝서넝하다'가 '시원하다'라는 의미인가요?

(○○○, 30대, 여, 제주)

답 '서넝서넝하다'의 '서넝서넝'은 '서늘서늘'의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아주 시원한 느낌을 표현할 때 '서넝서넝허다', '써넝써넝허다'라고 합니다. '시원하다'의 제주어는 '씨원허다'입니다.

9

문 수박 농사하는데 '머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 50대, 남, 제주)

답 아마 농사지을 때 사용하는 '멀칭(mulching)'이란 단어를 '머칭'으로 잘못 발음한 것 같습니다.

10

문 식당에 갔더니 '혼디'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고○○, 50대, 여, 제주)

답 '혼디'는 제주어 'ᄒᆞᆫ디'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ᄒᆞᆫ디(띠)'는 표준어 '함께'의 의미인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라는 의미로 쓰는 제주어입니다.

11

문 '개똥차반지'가 뭔가요? (○○○, 60대, 여, 제주)

답 '개똥차반지'란 쓸모없는 그릇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개똥+차반지' 구성으로, 개똥은 개의 똥이고, '차반지'는 채롱의 제주어입니다.

12

문 'ᄆᆞ긴다'는 무슨 뜻인가요? (양○○, 40대, 여, 제주)

답 전후 상황이 없이는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13

문 '곤밥은 나록 지어당'의 '지어당'은 무슨 뜻인가요?
(김○○, 50대, 남, 제주)

답 '지어당'은 '찧어다가'의 의미입니다.

14

문 '빌레'가 무슨 뜻인가요? (허○○, 50대, 남, 제주)

답 '빌레'는 '땅에 깔려 있는 돌'을 가리킵니다. 표준어 '너럭바위'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15

문 제주도에서 맛을 표현할 때 '베지근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무슨 뜻인가요? 같은 상황에서 육지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 70대, 남, 제주)

답 '베지근하다'는 '고기 따위를 끓이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지에서는 같은 상황일 때 '감칠맛 나다' 정도로 쓰면 되겠지만 '베지근하다'와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6

문 제주방언 중 '복닥'은 무슨 뜻인가요? (이○○, 50대, 남, 서울)

답 '복닥'은 '겉껍질'이나 '물건에 덧씌워지거나 얹은 모자' 따위를 말합니다.

17

문 '지삿개'가 인터넷에 '신들의 제단'이란 뜻으로 올라와 있는데 맞는 뜻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지삿개'는 '지셋개'라고도 하는데, '지사(지세)'에 '개'가 덧붙은 말입니다. '지사(지세)'는 '기와'를 이르는 옛말인데, 여기서는 용암이 솟아서 물을 만나 굳으면서 마치 검은빛을 띠는 구운 기와와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뭍으로 움푹 패 들어온 곳을 이르는 고유어로, 한자어 '포(浦)'나 '포구(浦口)'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18

문 제주어 'ᄂᆞ람지'는 표준어로는 무엇을 말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 50대, 여, 제주)

답 ‘ᄂᆞ람지’는 표준어 ‘이엉’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ᄂᆞ람지’는 ‘낟가리 위에 덮는 띠로 엮은 물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ᄂᆞ레미’라고도 합니다.

19

문 할머니들이 “남자들이 막 거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적으로 ‘추근거리다’라는 뜻도 있나요? (○○○, 30대, 여, 제주)

답 ‘거시다’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일부러 건드리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어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표현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20

문 할머니 삼춘이 “쪼꼴락한 애들을 막 육지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대화 흐름상 ‘똑똑한 애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쪼꼴락하다’가 ‘쪼만하다’ 외에 ‘똑똑하다’는 의미로도 쓰이나요? (○○○, 30대, 여, 제주)

답 ‘쪼꼴락허다’는 표준어 ‘쪼그마하다’에 대응하는 어휘입니다. ‘똑똑하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서 할머니의 말 속에는 아이들은 ‘쪼끄마할’ 때 육지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듯합니다.

21

문 '아도록ᄒᆞ다'와 '오시록ᄒᆞ다'는 의미가 다른가요?

(차○○, 40대, 남, 제주)

답 '아도록ᄒᆞ다'는 '아늑하다'는 의미의 제주어이고, '오소록(오시록)ᄒᆞ다'는 '구석지고도 으슥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22

문 '나록씨'는 뭔가요? '밭벼씨'인가요? (○○○, 30대, 남, 도외)

답 '나록씨'는 '볍씨'를 말합니다. '밭벼씨'의 제주어는 '산뒤씨'입니다.

23

문 '수ᄆᆞ루'가 무슨 뜻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수ᄆᆞ루'는 '스ᄆᆞ르'라고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수레ᄆᆞ르'(수레의 옛말은 '술위>술의/수릐' 등으로 실현되었음.)에서 변한 말이라고 하고, 술ᄆᆞ루(숲마루)에서 변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ᄆᆞ루'는 '마루'의 옛말 'ᄆᆞᄅᆞ>ᄆᆞ르'가 변한 말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지명입니다.

24

문 '답다니'가 무슨 뜻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답다니'는 '답+단-+-이'의 구성입니다. '답'은 돌로 쌓은 담이나 돌탑을 뜻하는 말이고, '단'은 '쌓은'의 제주어이고, '-이'

는 명사를 만드는 제주어입니다. '단'은 '답-(쌓-)+-ㄴ(관형사형어미)'의 구성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명인 것 같습니다.

25

문 '흑통'이 무슨 뜻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흑통'은 '흑통'의 변음으로, 비가 많이 오면 흙과 함께 물이 고이는 물통을 뜻합니다. 표준어 '흙탕/흙탕물'이 고이는 통이라는 뜻입니다.

26

문 '반찬ᄆᆞ루'가 무슨 뜻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반찬ᄆᆞ루'는 '반참ᄆᆞ루'의 변음으로 말해지는 지명입니다. '반참ᄆᆞ루'는 '반(半)+참(站)+ᄆᆞ루(마루)'의 구성입니다. '참'은 몽골어에서 온 말로, 예전에 말을 타거나 걸어갈 때, 일정한 거리에 둔 쉼터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25리마다 두었다고 하는데, 역참(驛站)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걸어서 서너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흔참'이라 합니다.

27

문 '속ᄃᆞ르'가 무슨 뜻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속ᄃᆞ르'의 '속'은 '쑥'의 제주어라고도 하고, '부석(浮石)'을 뜻하는 제주어라고도 합니다. 'ᄃᆞ르'는 'ᄃᆞ로'의 변음으로, 조그마한 밭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28

문 ‘어두ᄆᆞ루’, ‘바람ᄆᆞ루’가 무슨 뜻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어두ᄆᆞ루’는 ‘어둔ᄆᆞ루’의 변음입니다. 예전에 나무가 우거져서 어두 컴컴한 마루라는 데서 붙인 지명입니다. ‘바람ᄆᆞ루’는 ‘ᄇᆞ름ᄆᆞ루’의 변음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마루라는 뜻으로 만든 지명입니다.

29

문 ‘켓담’이 무슨 뜻이에요? (부○○, 50대, 여, 제주)

답 ‘켓담’은 ‘케’에 쌓은 돌담을 뜻하는 말입니다. ‘케’는 잡풀이 자라거나 마소가 뜯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자라는 곳으로 이르는 제주어입니다. ‘담’은 흙으로 쌓기도 하고 돌로 쌓기도 합니다.

30

문 ‘머들’이 무슨 뜻이에요? (부○○, 50대, 여, 제주)

답 ‘머들’은 돌무더기를 이룬 곳을 이르는 제주어입니다.

31

문 ‘ᄋᆞ물’이 무슨 뜻인가요? (○○○, 30대, 남, 제주(이주민))

답 ‘ᄋᆞ물’은 ‘여물’을 말합니다.

32

문 제주어 '으물'에 '알갱이'라는 뜻도 있나요?

(○○○, 30대, 남, 제주(이주민))

답 '으물'은 마소가 먹는 마른 풀을 뜻하기도 하고, '알맹이(물건의 껍데기나 껍질을 벗기고 남은 속 부분)'를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33

문 제주어 '팡'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 30대, 남, 제주(이주민))

답 '팡'은 '터(1. 자리. 2.땅. 3.활동의 토대나 일이 이루어지는 밑바탕)'나 '대(臺)'를 뜻하는 말입니다.

34

문 '느 울엉 나 울엉 ᄆᆞᆫ 울엉'의 '울엉'이 '울어'라는 뜻인가요?

(진○○, 50대, 여, 제주)

답 여기서의 '울엉'은 '울[鳴]어'의 의미가 아니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너 위해 나 위해 모두 위해'라는 말입니다.

35

문 민요 '오돌또기'와 '이어도사나'의 '오돌똑'과 '이어도'가 무슨 뜻이에요? (고○○, 50대, 남, 제주)

답 '오돌똑'은 '오돌또기'의 준말입니다. '오돌또기'는 특별한 뜻은 가진 말인 듯하나, 그 뜻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어도사나'에 등장하는 '이어도'는 주로 [이여도]로 발음되고, '이여'

로 말해지지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설 속 환상의 섬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민요 속 '이어도사나'에 나타나는 '이어도'는 후렴구나 전렴구에서 되풀이되는 가락의 가사로 나타납니다.

36

문 '제주마씸'의 '마씸'은 무슨 뜻이에요? (이○○, 50대, 여, 제주)

답 '제주마씸'은 '제주예요'라고 대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표준어 '~(예)요'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

문 '고렴'의 뜻은 뭔가요? (김○○, 50대, 여, 제주)

답 '고렴[顧念]'은 '돌보다', '생각해서 돌아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어 '고렴'은 상례에 찾아가서 위로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조문'의 뜻으로 쓰입니다.

38

문 '개창깍'이 무슨 뜻이에요? (안○○, 50대, 여, 제주)

답 '개창'은 '포구'의 의미이고, '깍'은 '끄트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포구의 끄트머리'라는 뜻입니다.

39

문 '백돌레'는 무슨 뜻인가요? (조○○, 40대, 여, 제주)

답 밭벼쌀이나 볍쌀 등 흰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도래떡을 말합니다.

40

문 '백시리'의 뜻이 뭔가요? (조○○, 40대, 여, 제주)

답 '백시리'는 흰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시루떡입니다. 즉 '백설기'를 말합니다.

41

문 '계랄 안주'는 무슨 말인가요? (조○○, 40대, 여, 제주)

답 '계랄 안주'는 '계란'과 '안주'가 결합된 말로 '삶은 달걀 안주'라는 뜻입니다.

42

문 '청감쥐'가 무슨 뜻이죠? (조○○, 40대, 여, 제주)

답 '청감쥐'는 '청감주'를 말합니다. 즉 '맑은 감주'의 의미입니다.

43

문 '자ᄉᆞ지'가 무슨 뜻이죠? (조○○, 40대, 여, 제주)

답 '자소주'를 뜻합니다. 소주의 색이 자줏빛이 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44

문 '귄닥사니 벗어지다'가 무슨 뜻인가요? '귄다사니'가 혹시 몽골어에서 온 말인가요? (○○○, 50대, 남, 제주)

답 '귄닥사니 벗어지다'는 '귀인성이 없어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귄다사니'는 '귀인닥사니' 등으로 말해지는 것으로 보아 몽골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45

문 '중산간도로', '중산간 지역'의 '중산간'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 50대, 남, 서울)

답 '중산간'은 제주에서 해발 200~300m 지점의 한라산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46

문 어르신들이 싸우고 나서 '제면하다'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 40대, 남, 제주)

답 아마 '데면데면하다'를 잘못 말씀하셨거나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어에는 그러한 상황에 쓰이는 단어 중 '제면하다'라는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

문 물허벅 뚜껑을 막을 때 '골침'이라고 하는데, '골침'이 뭔가

요? (○○○, 40대, 남, 제주)

답 뚜껑의 의미로 '골침'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골침'의 뜻이 '물동이 마개'의 뜻으로 쓰인다면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48

문 '가벳도롱ᄒᆞ다'는 어떤 뜻인가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가벳도롱ᄒᆞ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표준어 '갭직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49

문 '멕 잡고 신은 삼고'는 무슨 말인가요? (허○○, 60대, 여, 제주)

답 여기에서 '잡고'는 '잣고'가 아닌가 합니다. '잣고'는 표준어 '겯고'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멕 잣고 신은 삼고'는 '멱을 겯고 신은 삼고'라는 뜻이 됩니다.

50

문 '공장 걸다'의 뜻이 뭔가요? (○○○, 30대, 남, 제주)

답 '공장'은 '나뭇가지나 대 등을 못처럼 만들어 방안 벽이나 기둥에 박은 걸이'를 말합니다. 달리 '공젱이'라 합니다. '공장 걸다'는 '걸이에 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51

문 '튼내다', '상방', '널착'의 뜻을 알려 주세요. (○○○, 40대, 여, 제주)

답 '튼내다'는 떠올리다, '상방'은 대청마루, '널착'은 널짝의 제주어입니다.

52

문 '발라'의 뜻이 뭔가요? (○○○, 40대, 여, 제주)

답 '발라'는 표준어 '바로'(의존명사)에 대응합니다. 곧 '정해진 방향이나 곳'을 뜻하는 말입니다.

53

문 '수눌음'의 뜻풀이를 알고 싶습니다. (김○○, 60대, 남, 제주)

답 '수눌음'은 제주에서 '일을 서로서로 거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어 '품앗이'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수눌음' 외에도 '수눔'형으로도 나타납니다.

54

문 '墓舊左面松堂里黃澤場동그르다르甲坐'의 '동그르다르'가 무슨 뜻인가요? (부○○, 60대, 여, 제주)

답 '동그르다르'는 지명으로, '다르'는 'ᄃᆞ르', 'ᄃᆞ로'의 변음으로 보입니다. 'ᄃᆞ르', 'ᄃᆞ로'는 조그마한 밭을 이르는 제주어입니다. '동그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55

문 'ᄇᆞ랑지다'의 뜻을 알고 싶어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ᄇᆞ랑지다’는 ‘나이에 비해 똑똑하고 바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56

문 ‘ᄆᆞᆫ들락ᄒᆞ다’의 뜻을 알려 주세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ᄆᆞᆫ들락ᄒᆞ다’는 ‘작은 물건 따위가 매끈해서 홈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동글다’ 하는 뜻입니다.

57

문 ‘문상이나 헤영 가라’에서 ‘-영’은 무슨 뜻인가요?
(이○○, 50대, 남, 서울)

답 ‘-여서’입니다. ‘영’은 ‘하다’ 다음에 붙는 어미로, ‘-앙/-엉’의 이형태입니다.

58

문 ‘겝지그랑하다’가 무슨 뜻인가요? (○○○, 40대, 남, 제주)

답 ‘겝지그랑하다’는 ‘겝지근ᄒᆞ다’가 표준어 ‘짭짤하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짭짜름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4. 표기



1

문 '그 봄날'의 제주어는 '그 봄날'이라고 쓰나요?

(정○○, 50대, 여, 도외)

답 '그 봄날'은 아래아를 쓴 '그 봄날'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그 봄날'이라고 쓰면 됩니다.

2

문 제주에서는 요즘도 '쌀'을 '살'이라고 하는지요?

(정○○, 50대, 여, 도외)

답 혹 '쌀'이 곡식의 '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주어로는 '살'이 아니라 '쏠'이라고 합니다.

3

문 '지운다', '낡아간다'를 제주어로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정○○, 50대, 여, 도외)

답 '지우다'는 '지우다', '낡다'는 '헐다', '낡아가다'는 '헐어가다' 정도로 쓰면 됩니다.

4

일상생활에서 80~90대 삼춘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기록해둔 제주어입니다. 다음 글을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현○, 40대, 여, 제주)

문 "나 애기 때문에 얼마나 놈(남)한테 '왜골 받암시?'" 들리는 대로 쓴 거라서 왜골받암시로 썼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괄시받았다는 뜻인 거 같은데 정확한 표현이 뭐였을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맥락상으로는 아들 못 낳아서 괄시받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답 '왜골받암시'는 잘못 적시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의견대로라면 "나 애기 때문에 얼마나 놈한테 괄세 받아신지 알암시냐?" 정도여야 합니다. '괄시'를 제주에서 '괄세'라고 합니다.

문 "공장도 설러불고, '얼머시'도 설러불고." 양봉이랑 무수공장해서 돈 벌다가 공장 설러불었다는 이야기인데 '얼머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표기가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답 '얼머시'는 '얼마 엇이'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얼마 없어서' 그만두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문 "잡아노난 군인들은 그놈을 이제, '포성'을 치웁젠 하는 거라. '포성 치웁지 맙서.' 나 고라라." 이건 4·3 이야기 해주시다가 나온 말이었는데요, 발음은 분명히 포성이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답 이글의 문맥상으로는 '포승'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성 치웁지 맙서'도 '포승 체우지 맙서'가 될 것입니다. '나 고라라'는 '나 골아라'로 표기해야 합니다.

5

문 '빚을 내다'의 '빚을'을 제주어로 바꿔 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빚'의 제주어는 '빗'입니다. '빚을[비슬]'처럼 발음되기 때문에 표기는 '빗을'이라고 해야 합니다.

6

문 '말 ᄀᆞᆫ다' 할 때 'ᄀᆞᆫ다'를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말 ᄀᆞᆫ다'는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ᄀᆞᆫ다'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ᄀᆞᆫ다'의 기본형은 'ᄀᆞᆮ다'입니다.

7

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에 '고망은 잘 안 보여엾인게양'의 '보여엾인게양?'의 표기가 맞나요? (오○○, 50대, 여, 제주)

답 현재 제주도에서 고시한 '제주어표기법'에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기의 어려움, 학자 간 이견 등으로 말미암아 '보여엾인게양?'을 '보염신게양?'처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8

문 사전에 올림말로 올릴 때 '쉐'를 '쇠'로 쓰고 발음에 [쉐]로 쓰면 안 될까요? (이○○, 50대, 남, 서울)

답 현재 제주도에서 고시한 '제주어표기법'에 소의 제주어는

'쉐'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고려하여 '쇠'로 쓰고 발음기호 [쉐]를 써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

문 '쉐'와 '쒜'를 구별하나요? (이○○, 50대, 남, 서울)

답 '쉐[牛]'는 소, '쒜[鐵]'는 '쇠'로 발음됨에 따라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쒜'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쉐[鐵]'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0

문 '나는예'의 '나는'과 '예'는 붙여 쓰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나는요'의 의미인 '나는예'의 '예'는 보조사여서 앞말에 붙여서 써야 합니다.

11

문 제주어 '속암수다'의 '속'은 아래아로 표기해야 하나요?
(○○○, 30대, 남, 제주)

답 '속암수다'는 '속'은 아래아가 아니라 [오]음이 살아 있는 '속암수다'라고 써야 합니다.

12

문 '너무 어둡다'라고 할 때 '너무'의 제주어 표기 방식을 알고 싶

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ㅣ→너뮈→너믜'로 변한 게 맞는 것 같고, 오래전에 제주도가 처음 펴낸《제주어사전》에도 '너무→너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자가 펴낸 제주학연구센터의《제주어표기법해설집》에 '너무→넘이'라고 나와 있다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 60대, 남, 제주)

답 《제주어표기법해설집》에서 표준어 '너무'에 대응하는 제주어를 '넘이'로 써야 한다는 해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는 '넘다'의 '넘-'에 '-우'가 붙어서 파생된 부사로, '너무'로 굳어진 형태로 오래도록 써왔기에 '너무'에 대응하는 제주어도 '너미'로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무'의 중세 어휘가 '너모', '너므'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표준어 '너무'와 제주어 '너미'가 짝이 된다는 점도 고려한 내용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넘이'로 써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동사 '넘-'에 부사를 만드는 '-이'가 결합된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글맞춤법 제19항(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을 적용하여 '넘이'로 써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문 '흔듸 허는' 할 때 '허는'의 '허'는 아래아 표기법을 사용하나요? (○○○, 40대, 여, 제주)

답 '흔듸 허는'는 '흔듸 ᄒᆞ는'처럼 아래아를 쓰기도 합니다. [ᄋᆞ]로 발음할 때는 'ᄒᆞ는'이라 쓰고, [어]로 발음할 때는 '허는'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흔듸'의 '듸'는 '디'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14

문 초등학교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만'을 제주어로 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0대, 여, 충북)

답 '한번만'을 제주어로 바꿔 쓰려면 '혼번만'이라고 하면 됩니다.

15

문 '씨암닭'을 제주어로 고쳐 쓸 때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 30대, 남, 서울)

답 '씨암틱'이라고 쓰면 됩니다.

16

문 제주어 '문둥', '무뚱' 중 어느 것을 기본 형태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이○○, 50대, 남, 서울)

답 둘 다 쓰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기본 형태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무뚱'은 '뚱'이라고 발음될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17

문 '허명의 문서'를 '허멩이 문서'라고 써도 되나요?

(고○, 40대, 여, 제주)

답 제주에서는 '허명의 문서'라는 말 대신에 '허멩이 문서'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8

문 이번에 제주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름감귤에 대해 아시나요?'라고 할 때 '알고 있나요?'의 제주어는 '알암수꽈?'라고 써도 되나요? '감귤에 대해 다 알았나요?'라고 할 때 '알았나요?'를 '알암수꽈?'라고 똑같이 써도 되나요? 방송 타이틀 '알암수꽈'의 표기는 맞는 건가요? (○○○, 20대, 여, 도외)

답 '알암수꽈'도 맞는 표현이지만, 글로 쓸 때에는 '알암수과'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수과'가 존댓말이기 때문에 '알암수과'는 '아시나요?'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알았나요?'라는 표현은 '알아졈수과?'라고 쓰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표기는 발음에 따라 '알암수꽈' 또는 '알암수과'가 실현되기 때문에 둘 다 써도 무방합니다.

19

문 '~헤수광?', '~헤수과?' 이 둘의 표기가 다 맞는 건가요?

(○○○, 40대, 남, 제주)

답 쓰는 사람에 따라 '헤수광?'이라고 하면 '헤수광?', '헤수과?'

로 하면 '헤수과?'로 쓰면 됩니다.

20

문 제주어 '맹글래', '사래', '보래(보러)', '폴래', '수눌래'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강○○, 50대, 남, 제주)

답 '멩글레', '사레', '보레', '폴레', '수눌레'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표준어 '-러'에 대응하는 형태가 '-레'이기 때문입니다.

21

문 '헤불엇수다'를 '헤부럿수다'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헤불엇수다'로 써야 하나요? (문○○, 50대, 여, 제주)

답 기본형이 '헤불다'이기 때문에 '헤불엇수다'로 써야 합니다.

22

문 '마씨?', '마씀?' 중 뭐가 맞는 표현인가요? (○○○, 30대, 여, 제주)

답 '마씨?' '마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23

문 제주어로 '삼촌'을 '삼춘'이라고 써야하나요, '삼촌'이라고 써야 하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삼춘'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24

문 '오랜만에 가족덜 모다지난 막 지꺼지지양?'의 표기를 알려주세요. (부○○, 40대, 여, 제주)

답 '오랜만에 가족덜 모다지난 막 지꺼지지양?'이라고 쓰면 됩니다.

25

문 '옵데강? 오젠 허난 속앗수다'의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 40대, 여, 제주)

답 '옵데강? 오젠 허난 속앗수다'처럼 하면 됩니다.

26

문 제주어를 표기할 때, 또는 발음할 때 '~헷저', '~헷져'에서 어미를 '~저/져'처럼 표기하는데 맞는 표기가 궁금합니다. (박○○, 30대, 남, 제주)

답 '~헷저', '~헷져' 할 때의 올바른 표기는 '~헷저'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27

문 '하늘·바다·올레를 몬딱 품은'의 제주어 표기가 맞나요? (○○○, 30대, 여, 제주)

답 '몬딱'은 '문딱'으로, '품은'은 '쿰은'으로 고쳐 쓰는 게 더욱 제주적일 것 같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표준어와 똑같고,

'올레'는 맞게 표기되었습니다.

28

문 아래아를 사용하지 않고 '코삿ᄒᆞ다'를 표기할 건데, '코삿하다'라고 써야 하나요? 아니면 '코삿허다'라고 써야 하나요?
(○○○, 40대, 여, 제주)

답 '코삿허다'를 쓰는 것이 더욱 제주적입니다.

29

문 '놀암수다'를 '놀아앐우다'라고 쓰는데 맞나요?
(고○○, 70대, 남, 제주)

답 제주도에서 고시한 〈제주어표기법〉에는 그리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ㅺ'을 현대국어에 받침으로 쓸 수 없어서 '놀암수다'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30

문 '많이 사랑합니다'를 제주어로 어떻게 표기하나요?
(○○○, 40대, 여, 도외)

답 '많이'는 '하영', '사랑합니다'는 '사랑헴수다'로 바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영 사랑(ᄉᆞ랑)헴수다'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31

문 어떤 신문에 '요망지다'라는 문구가 나왔는데 '요망지다'는 표기가 쌍아래아를 쓰는 게 맞나요? (○○○, 70대, 남, 제주)

답 발음에 따라서 '요망지다'가 아닌 'ᄋᆞ망지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32

문 포구의 '안캐', '중캐', '밧캐' 할 때 '바깥쪽에 있는 포구'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현○○, 50대, 남, 제주)

답 발음이 [받캐]라고 나기 때문에 '밧캐'로 쓰는 게 맞습니다. '안캐'는 안쪽에 있는 포구, '중캐'는 중간 쪽에 있는 포구, '밧캐'는 바깥쪽에 있는 포구를 말합니다.

33

문 '가을'을 제주어로 'ᄀᆞ슬'이라 하던데 표기는 아래아를 사용하나요? (○○○, 30대, 남, 도외)

답 '가을'은 제주어로 'ᄀᆞ슬', 'ᄀᆞ실'이라고 하며, [ᄋᆞ]를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34

문 '~ᄒᆞ염다/~ᄒᆞ였다', '~헴다/~헸다' 이 중에 어떤 표기가 맞는 표기인지 알려 주세요. (박○○, 20대, 남, 제주)

답 2014년 제주도에서 고시한 〈제주어표기법〉에서는 [허염다?]

로 발음되면 '허염다'로 쓰고 [허염따?]로 발음되면 '허였다'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니?'의 뜻으로 [허염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일 허염다?(○) / 일 허염따? 다만 "일 허염따고 헤"와 같이 인용어미가 붙으면 된소리로 실현됩니다. 이때는 '허였다'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35

문 '이서/잇어', '어서/엇어' 이 가운데 무엇이 맞는 표기인지 알려 주세요. (박○○, 20대, 남, 제주)

답 '잇다'는 '잇어'와 '이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있다'의 제주어는 '잇다', '이시다', '싯다' 등으로 나타나는데, 어간 '잇-'에 어미 '-어'가 붙으면 '잇어'가 되고, 어간 '이시-'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이서'가 되는 것입니다. '엇다'는 '엇어'라고 쓰면 됩니다. '엇어'는 어간 '엇-'에 어미 '-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없다'의 제주어는 '읏다'로도 실현됩니다.

36

문 '샛아버지'의 '샛'을 '셋'으로 써야 하나요, '샛'으로 써야 하나요? (박○○, 50대, 남, 제주)

답 '셋'으로 써야 합니다. 이는 'ᄉᆞ이'라는 중세 어휘에서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37

문 '벤벵뒤굴'의 표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박○○, 50대, 남, 제주)

답 '벤벵뒤굴'이라고 쓰면 됩니다. '벤벵뒤굴'은 지명입니다.

38

문 '밭 주변 쌓아진 돌무더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케'라고 써야 하나요, 아니면 '벡케'라고 써야 하나요? (김○○, 40대, 여, 제주)

답 밭 경계에 벽처럼 쌓아진 돌무더기여서 '벡케'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39

문 '맴쇠'라고 써야하나요, '멤쇠'라고 써야하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제주어표기법〉에 따라서 '멤쉐'라고 써야 합니다.

40

문 'ᄋᆞ망지다'와 '요망지다' 중 어느 것으로 표기해야 할까요?
(김○○, 50대, 여, 제주)

답 'ᄋᆞ망지다'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41

문 제주어 '영', '정'은 쌍아래아를 쓰나요? (○○○, 20대, 남, 제주)

답 '이렇게'의 제주어는 '영', '저렇게'의 제주어는 '정', '그렇게'

의 제주어는 '경'이라고 쓰면 됩니다.

42

문 제주어에서 '해'를 '헤'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해'로 그대로 표기하면 안돼나요? 발음이 [E]로 중화되는 것은 아닌가요? (위○, 40대, 여, 도외)

답 동사 '하다'는 'ᄒᆞ다' 또는 '허다'로 나타나기 때문에 'ᄒᆞ-+-어', '허-+-어'가 되어 '헤'로쓰는 게 좋겠습니다.

43

문 '집이 갓저'/ '집의 갓저' 중에 뭐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 20대, 남, 제주)

답 '집에 갔다'는 의미로, 학자들 간 견해차가 있긴 한데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통일만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4

문 '깨껏디'의 표기를 알려주세요. (진○○, 60대, 남, 제주)

답 '바닷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갯것디'로 쓰면 됩니다.

45

문 'ᄒᆞ꼼'의 제주어 표기를 알려 주세요. (진○○, 60대, 남, 제주)

답 'ᄒᆞ꼼'이라고 쓰면 됩니다.

46

문 죄진 게 '엇수다', '어수다', '엇우다' 어느 게 맞나요?

(김○○, 50대, 여, 제주)

답 '엇수다', '엇우다'는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통일만 시켜주면 됩니다.

47

문 다음은 제가 만든 시에 쓴 제주어입니다. 제주어 표기가 맞는지 살펴봐 주세요. (정○○, 50대, 여, 도외)

답

문	답
뻡아도	뽑아도
즈레고	자라고
먹으멩	먹으멍
으달	아덜
뒤져삿수다	뒤졋수다
스을 만에	스을 만이
떠올랏쑤다	떠올랏수다
지나갔쑤다	지나갓수다
믈르고	몰르고
묻었수다	묻엇수다

5. 어원



1

문 '세미양오름'이 왜 '세미양오름'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어원을 알고 싶습니다. (○○○, 50대, 여, 제주)

답 '세미양오름'은 정상에서 '세미('샘'의 제주어)'가 솟아난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것입니다. '양'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옛말입니다. '세미양오름'을 한자로 쓰는 과정에서 '三義岳'으로 쓰고 있는데, 오늘날 한자음으로 쓰는 '삼의악'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닙니다. '세미양오름'은 '오름'을 생략하여 '세미양'이라고도 말합니다.

2

문 '숙대낭'이 인터넷에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나무'여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맞나요? 틀리다면 바르게 고쳐 주세요. (○○○, 50대, 남, 제주)

답 '삼나무'의 일본어가 'スギ(수기)'인데, 이것이 제주어에서 '숙'으로 굳은 듯합니다. 맨 뒤에 제주방언 '낭'이 덧붙은 것이고, 중간에 붙은 '대'는 '데'로 발음되는데, '대'가 한자인지, '숙데'가 '수기'를 이르는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

문 제주어는 어디에서 왔나요? (이○○, 50대, 여, 제주(이주민))

답 제주어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어의 어원을 밝힐 때는 제주의 문화를 알

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의 기원을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4

문 제주어 '식게'의 어원을 알 수 있을까요? (○○○, 50대, 여, 제주)

답 '식게'의 어원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식가(式暇-관원(官員)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 집안의 기제사 따위가 있을 때에 주었다.)에서 왔을 것이라는 주장

② 무속의 씻김굿과 관련 '싯그다'에서 왔다는 주장 등

5

문 차귀도목에 '지실이섬'이라고 있는데 혹시 어원을 알 수 있을까요? (한○○, 50대, 남, 제주)

답 정확한 어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실이섬'의 '지실'이 표준어 '감자'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니, 섬 모양이 감자와 비슷하다는 데서 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빌레의 표준어는
무신거우꽈

6. 기타1



1

문 제주에서 '상대방'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나요?
(○○○, 20대, 여, 제주)

답 '상대방'에 대응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나 가까운 사이에서 상대방을 정답게 부르는 말은 '지', '지녁', '이녁' 등을 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지위 등)나 거리에 따라, 부를 때는 '봅서', '이봅서(여보세요, 여봐요)', '어이(어이)', '나봅서', '날봅서(저보세요)', '양', '예(예)' 등으로 말하면 됩니다.

2

문 '물허벅'의 작은 거는 뭐라고 말하나요? (○○○, 40대, 남, 제주)

답 지역에 따라서 '대바지' 또는 '대베기'라고 합니다.

3

문 제주어에서 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자음 제주어와 순제주어 수사를 알려주세요. (박○○, 20대, 남, 제주)

답 한자음: 숫자-일, 이, 삼, 亽, 오, 육, 칠, 팔, 구, 십.
순제주어: 수사-ᄒᆞ나, 둘, 서이(싓), 너이(늿), 다숫, ᄋᆞ숫, 일곱, ᄋᆞ답, 아홉, 열.

4

문 제주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어로 포럼 모임을 정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신○○, 50대, 남, 도외)

답 다음의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이니 '흔듸 모영/흔디 모영'을 추천합니다. '흔듸 모영/흔디 모영'은 '함께 모여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쉼팡'으로, '쉼팡'은 예전 사람들이 마을에서 공론을 할 때 모여서 했던 곳으로 휴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문 '바보-뚜럼'처럼 독특한 제주어는 어떤 게 있나요?
(임○○, 30대, 남, 도외)

답 너무 막연해서 답변이 어려우니 전자우편으로 원하는 단어, 문장 등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6

문 광장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제주에서 뭐라고 하나요? (○○○, 20대, 남, 제주)

답 제주에는 광장문화가 없어 광장과 같은 곳을 부르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예부터 어르신들이 마을에 있는 큰 나무 주변에 큰 돌을 놓고 모여 쉬던 곳이 있는데, 그러한 장소를 '쉼팡', '낭그늘(나무그늘)'이라고 합니다.

7

문 '놉 빌다'의 '놉'은 제주어인가요? (김○○, 30대, 여, 제주)

답 '놉'은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일꾼'이란 뜻으로, 표준어와 같습니다.

8

문 제주어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녁'이라 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녁'은 낮춤말인가요? (○○○, 20대, 여, 제주)

답 '이녁'은 동등한 위치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로, 낮춤말이 아닙니다.

9

문 '전날'과 '첫째 날'부터'열째 날'까지의 제주어가 알고 싶습니다. (임○○, 30대, 여, 제주)

답 '전날'의 제주어는 '전날', '아시날'로 나타나며, '첫째 날'부터 '열째 날'까지의 제주어를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날~열째 날:** 첫찻날(첫쳇날), 둘찻날(둘쳇날), 싓찻날(싀쳇날), 늬찻날(늬쳇날), 다숫찻날(다숫쳇날), 우숫찻날(우숫쳇날), 일곱찻날(일곱쳇날), 우답찻날(우답쳇날), 아옵찻날(아옵쳇날), 열찻날(열쳇날)입니다.

10

문 '느 울엉 문 울엉'에서 '울엉'의 뜻이 '위하여'라는 의미가 맞나요? (채○○, 50대, 남, 제주)

답 이 경우 '울다'는 '위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느

울엉, 문 울엉'은 '너 위해, 모두 위해'라는 뜻입니다.

11

일상생활에서 80~90대 삼춘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기록해둔 제주어입니다. 다음 글을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현○, 30대, 여, 제주)

문 "아니 오늘도 나(내)가 '회쳔' 화투치고." 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표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노인정 나가서 화투쳤다는 말인데 '회쳔'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여기에서 '회쳔'은 '헤천'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헤천'은 표준어 '해종일'에 해당합니다.

문 "일본 강 '도깨비장사' 하고"에서 '도깨비장사'가 무엇인가요?

답 직접 듣지 않아서 '도깨비장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깨비시장'이 새벽에 잠깐 서는 장인 점을 감안하면 새벽에 잠깐 서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문 '문서'를 '문세'라고 말하기도 하나요?

답 '문세'는 표준어 '문서'에 대응하는 제주어입니다.

12

문 ‘유혈목이’의 제주어인 ‘돗줄레’를 ‘돗+줄레’로 분석하는데, ‘돗’이 ‘돼지’와 연관되나요? (이○○, 50대, 남, 서울)

답 이때 ‘돗’은 돼지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돗’에는 ‘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혈목이가 검은 줄이 있어서 ‘돗’이 붙은 어휘인 것 같습니다.

13

문 ‘동고령’을 ‘밥바구니’라고 해도 되나요? (이○○, 50대, 남, 서울)

답 ‘동고령’은 ‘도시락’의 제주어입니다.

14

문 ‘테역’이 ‘잔디와 뗏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가요?
(이○○, 50대, 남, 서울)

답 ‘테역’은 표준어 ‘잔디’에 해당하는 제주어입니다. ‘테역’은 ‘뗏장’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뗏장’은 잔디를 삽으로 떠낸 덩이를 말합니다.

15

문 서귀포에 ‘황우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황우지’가 무지개의 고어인가요? (안○○, 50대, 여, 제주)

답 ‘무지개’의 고어는 ‘므지게’입니다. 이 ‘무지개’를 제주에서는 ‘황고지’, ‘항고지’, ‘상고지’라고 합니다. ‘황고지’의 소리가

변하여 '황오지', '황우지'라고도 합니다.

16

문 제주어 '할망'을 '할마님'이라고는 안 하나요? (양○○, 40대, 여, 제주)

답 '할망'은 나이든 분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고, '할마님'은 높임의 뜻입니다. '할망'은 주로 지칭어로 쓰입니다.

17

문 '고렴'을 '고견'이라고도 하나요? (조○○, 40대, 여, 제주)

답 지역에 따라 '고렴'이라고도 하고, '고견'이라고도 합니다. 표준어 '조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18

문 '도야지'도 제주 방언인가요? (양○○, 40대, 여, 제주)

답 '도야지'는 돼지의 방언입니다. 달리 '도새기', '뒈야지'라고도 합니다.

19

문 '정공재'가 '눈치'의 제주어인가요? (윤○○, 20대, 여, 제주)

답 '정공재'에서 '공재'가 '눈동자'라고 하면 '동자'를 '공재'라고는 하나, '정공재'가 '눈치'의 의미를 갖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0

문 '흔디 누리는 제주 예술꽃 하영 피우곡 문화 향기 흔디 누리는 제주'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고○○, 60대, 남, 제주)

답 '예술 고장 하영 피왕 문화 향기 흔디 누리게 마씸.' 또는 '예술 고장 하영 피왕 문화 향기 흔디 누려 봅주.'는 어떤가요?

21

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을까요? (강○○, 30대, 여, 제주)

답 '모드락모드락'은 꽃이나 사람 등이 모여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어감이 좋아 추천합니다.

22

문 '이제 숨 쉬는 거야, 읽는 거야'의 '거야'의 제주어는 '거라'인가요? (김○○, 50대, 여, 제주)

답 '거야'의 제주어는 '거라'입니다.

23

문 제주에서 전국의 유치원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주어로 인사하는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 50대, 남, 제주)

답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사여서 "먼 질 오젠 허난 막 속앗수다. 펜안히덜 싯당 갑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은

"먼 길 오려고 하니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있다 가세요."라는 의미입니다.

24

문 '집어던져요, 피가 흘러요'와 같이 '~어요'로 끝나는 문장은 제주어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 50대, 여, 도외)

답 '-어요'는 제주어에서 '-마씨', '마씀'과 같이 끝맺지만 '집어던져요', '피가 흘러요'와 같은 문장은 '-수다'로 끝내는 게 어울립니다. '집어던져요'는 '잡앙데껌수다', '피가 흘러요'는 '피 흘쳠수다'처럼 쓰면 됩니다.

25

문 제주어로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 40대, 남, 제주)

답 새해 인사로, '경자년 새해에도 문딱 노고록ᄒᆞ게 보내게마씸!'을 추천합니다.

26

문 쌍아래아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 30대, 여, 제주)

답 쌍아래아는 'ᆞᆞ'로 표기합니다. '한글'로 문서를 작성할 때 글자판의 'ㅏ'를 두 번 두드리면 'ㆍ'로 변하고, 그 상태에서 shift + ㅏ를 두드리면 쌍아래아(ᆞᆞ)가 됩니다. 아니면 'ㅏ'를 네 번 두드려도 됩니다. 혹 안 되면 글자판 바꾸기에서 '한국

어 두벌식 옛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7

문 기분, 감정 등에도 '베지근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송○○, 70대, 남, 제주)

답 '베지근허다'는 감칠맛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나 기분이나 감정이 좋을 때도 "하르방은 손지 좋은 대학교에 갓덴 ᄒᆞ난 막 베지근ᄒᆞᆫ 거 닮읍디다"처럼 '베지근허다'를 쓸 수 있습니다.

28

문 부산에 사는 해녀 수필가가 쓴 수필집에 '소르방 다르방'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혹 제주어와 관련이 있나요?

(김○○, 50대, 남, 제주)

답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의미를 짐작할 수 없네요.

29

문 제주도 방언이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 20대, 여, 제주)

답 제주도 방언은 지역에 따라서 어휘 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빙떡'은 제주시와 동쪽에서는 '빙떡', 제주시 서쪽과 대정에서는 '빈떡', 정의지역에서는 '정기떡'이라

고 합니다. 이는 고려시대에 동도현, 서도현으로 나누고 조선 시대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나누는 행정구역이 방언차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30

문 식당 메뉴판을 준비하는데, 메뉴를 2~3개 묶어서 제주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40대, 남, 제주)

답 메뉴를 함께 묶는 것이라면 '흔듸 무껑'은 어떨까 합니다. '흔듸 무껑'은 '한데 묶어서'라는 의미여서 메뉴 이름으로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31

문 제주에서는 새우리전을 '부쳐 먹는다'라고 합니까, '지져 먹는다'라고 합니까? (위○, 40대, 여, 도외)

답 '새우리전'을 잘 지져 먹지는 않지만 '새우리적 지지라'처럼 말합니다. 예전에 제주 사람들은 '전'을 '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박적', '마농적' 따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2

문 '고노쿨'이 언제부터 쓰인 제주어인가요? (○○○, 30대, 여, 제주)

답 '고노쿨'은 표준어 '달개비'에 대응하는 제주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어휘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3

문 '집에 인?', '집에 언?' 할 때, '인', '언'은 바른 제주어인가요? (김○○, 40대, 여, 제주)

답 '있어'와 '있어?'의 뜻으로 쓰는 '인', '인?', '없어', '없니?'의 뜻으로 쓰는 '언', '언?' 등은 모두 근래 제주도 중·고등학생들이 만들어 쓰는 신종 방언입니다. 옛 어른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34

문 제주어에 '귤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 30대, 남, 제주)

답 '귤팡'이라는 어휘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신조어로 보입니다.

35

문 제주어에 '낭뜨레'라는 어휘가 있나요? (○○○, 30대, 남, 제주)

답 '낭뜨레'는 '낭+뜨레'를 합친 신조어로 보입니다.

36

문 '귤팡'을 신조어로 사용해도 될까요? (○○○, 30대, 남, 제주)

답 '귤팡'이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밝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

문 제주도 지명에 '하귀', '동귀', '의귀' 등 '귀'가 많이 붙는 이유

가 있나요? (○○○, 40대, 남, 제주(이주민))

답 '하귀', '동귀'에 나타나는 '귀'와 '옷귀', '서귀'에 나타나는 '귀'는 다른 말입니다. '하귀', '상귀', '동귀'의 '귀'는 '귀일'에서 '일'을 빼버리거나 생략한 것입니다. '귀일'의 뜻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옷귀'와'서귀'에 나타나는 '귀'의 뜻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38

문 아래아는 언제 쓰이나요? (○○○, 30대, 여, 제주)

답 어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ㅗ'인가 'ㆍ'인가의 구분은 현대 표준어와 비교해 보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다'의 제주어를 'ᄯᅡᄯᅳᆺᄒᆞ다'로 쓸까 '또똣ᄒᆞ다'로 쓸까 망설이게 될 때는 표준어 '따뜻하다'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곧 변화한 어휘라고 하면 'ㆍ'를, 변화하지 않았다면 'ㅗ'를 쓰면 되는데, 'ᄯᅡᄯᅳᆺᄒᆞ다'의 경우는 '따뜻하다'로 변화했으니 'ㆍ'를 쓰면 됩니다. '돼지'를 '돗'이라고 쓸까, '듯'이라고 쓸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와 비교할 때 '돗'의 'ㅗ'가 '돼지'의 'ㅗ'와 같아 변하지 않았으니 '돗'이라고 쓰면 됩니다.

39

문 '51명'을 발음할 때 '쉰흔 멩'이 맞나요, '쉬은 흔 멩'이 맞나요? (○○○, 40대, 여, 제주)

답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쉰 흔 멩'이라고 하면 '쉰 흔 멩'이라고 쓰면 되고, '쉬은 흔 멩'이라고 발음하면 '쉬은 흔 멩'이라고 쓰면 됩니다.

40

문 1940~50년대에 제주에서 '할망'이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할망~'하고 부르는 것이 드물거나 버릇없는 행동이었나요? 만일 그렇다면 '할망' 대신 어떤 말로 불렀는지도 궁금합니다. (송○, 30대, 여, 제주)

답 과거에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할머니', '할아버지', '할무니', '할아부지' 정도로 불렀지 '할망', '하르방'이라고 직접 부르진 않았습니다. '우리 할망이', '철수네 하르방이'와 같이 지칭으로 사용할 때만 '할망', '하르방'이라 썼습니다. 실제로 직접 '할망', '하르방'이라고 불렀다면 버릇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를 때, 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를 때는 '할망', '하르방'이 사용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부를 때는 '호칭'과 '지칭'을 구별해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41

문 '나신디 책 도라'의 '도라'의 기본형은 뭔가요?

(○○○, 40대, 남, 제주(이주민))

답 '도라'가 '다오'의 의미인 것을 보면 '도다'가 됩니다. '도라,

도렌' 정도로 활용합니다.

42

문 '오꼿'은 어떨 때 사용되는 낱말인가요? (박○○, 20대, 남, 제주)

답 '오꼿'은 ①가만히 있다가 선뜻 일어서는 모양. ②여유를 주지 않고 일을 선뜻하게 해 버리는 모양.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예)나 그거 오꼿 잊어 불엇저.(나 그거 그만 잊어 버렸어.)

43

문 제주어의 조사(품사; 가, 는 따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나요? (박○○, 20대, 남, 제주)

답 '-가', '-을/-를', '-은/-는', '-디', '-디레', '만', '도' 따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가 그거 먹어시냐?', '밥을 먹어살 건디 양.', '오리는 안 보여라.', '밧디 가멘?', '어디레 감수과?', '느만 오라.', '느도 오라.' 등이 있습니다. 현평효·강영봉(2011)의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4

문 흔히 남의 거짓이나 꾀에 넘어가는 것을 '속다'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속다'는 '수고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고구마'는 '감저'라고 하고 '친구'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풀을 벨 때 쓰는 '낫'은 뭐라고 할까요?'라는 질문에서 정답을 '호미'라고 썼는데 맞을까요? (○○○, 30대, 여, 도외)

답 맞습니다. 다만 '친구'는 '친구'이고, '아이'는 '아이'입니다. 물론 '벗'도 '벗'입니다.

45

문 제주에서 '낫'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제주에서 '낫'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 30대, 여, 도외)

답 제주에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 사용하는, 날이 크고 자루가 긴 도구입니다. 표준어 '벌낫'에 해당합니다. 이 '낫'은 가끔 '장낫'이라고도 합니다.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호미'입니다.

46

문 제주어와 표준어를 비교할 때 의미가 달리 사용되거나 혼동되는 제주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 30대, 여, 도외)

답 제주어로 '실프다'는 표준어로 '싫다'라는 뜻으로, 표준어 '슬프다'와 비슷하여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어 '난간'은 표준어 '툇마루'에 대응하는 어휘로, 표준어 '난간'과 혼동됩니다.

47

문 제주어 '벤조롱ᄒᆞ다'는 어떨 때 쓰나요? 날씨가 좋은 때도 씁니까?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벤조롱ᄒᆞ다'는 사람의 얼굴이나 겉모습이 반반하고 예쁘장

할 때 쓰입니다. 그러므로 날씨와 함께 쓰면 어색하게 됩니다.

48

문 '노고록ᄒᆞ다'는 어떨 때 쓰나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마음이 편안하거나 느긋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표준어 '노긋하다'에 대응합니다. (예) 그 사름 말곧는 거 보난 잘도 노고록ᄒᆞᆫ 거 닮다이.(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 잘도 노긋한 거 같다.)

49

문 'ᄇᆞ랑지다'를 사람이 아닌 무생물에 쓸 수는 없을까요?
(○○○, 40대, 여, 제주(이주민))

답 'ᄇᆞ랑지다'는 '부지런하다', '야무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생물에 쓰는 것은 어색합니다.

50

문 'ᄒᆞᆫ 칭'은 어느 정도의 무게인가요? (허○○, 60대, 여, 제주)

답 'ᄒᆞᆫ 칭'은 60킬로그램입니다. 칭은 근(600g)의 100배입니다. 곧 100근이 한 칭입니다.

51

문 '코삿ᄒᆞ다'라는 제주어가 표준어로 '흡족하다', '만족스럽다'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 다른 제주어는 없나요?
(○○○, 40대, 여, 제주)

답 ‘코삿ᄒᆞ다’ 외에는 ‘만족스럽다’, ‘흡족하다’로 쓰이는 제주어는 따로 없으며, 굳이 제주어로 표기하자면 ‘흡족하다’는 ‘흡족ᄒᆞ다’ 정도로 쓰면 좋겠습니다.

7. 기타2



1

문 KCTV에서 '~마씸'을 '~마쉬'로 사용하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표기법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60대, 남, 제주)

답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방송사에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제주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

문 '흔저옵서예'를 '혼저옵서예'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아 사용을 제대로 하게끔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60대, 남, 제주)

답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받아들이고, 제주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

문 제주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있나요? (○○○, 50대, 남, 경기)

답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4

문 제주어 종합상담실의 인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충원할 예정인가요? (강○○, 40대, 남, 제주)

답 당장 채용 예정은 없으며, 채용하게 된다면 채용공고가 따로 나갑니다.

5

문 도서관에서《제주어사전》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매품이라고 하는데, 혹시 구입을 할 수 있나요? (김○○, 60대, 남, 제주)

답《제주어사전》은 비매품으로, 2009년도 발행한 사전이라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주학아카이브 누리집에서 피디에프(PDF)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예전에 '사투리 통역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있나요? (○○○, 30대, 여, 제주)

답 '사투리 통역원'은 예전에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114 안내 본부를 광주로 옮기려는 계획이 있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제주어로 114에 질문을 하는 것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인해 본부 이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통역원이 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문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김○○, 30대, 여, 제주)

답 제주어종합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므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문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 중인데, 작성한 대본을 제주어로 대역해 주실 수 있나요? (○○○, 20대, 남, 제주)

답 제주학연구센터는 대역한 대본을 감수해 주기는 하나 대역을 직접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제주어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아카이브 누리집에 있는《제주어사전》을 이용하여 직접 대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문 제주도 방언을 배우고 싶은데,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40대, 남, 도외)

답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내에서《제주어사전》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제주도 방언에 관련된 서적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문 제주어를 알려주는 책자가 있나요? (○○○, 70대, 남, 제주)

답 '제주방언' 또는 '제주도방언', '제주어'라는 책목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이나 제주학연구센터 발간의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의 부록 '제주방언 연구 논저 목록'을 참고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문 중학교에서 제주어 담당과 제주어 동아리를 맡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에게 제주어에 관련된 견학을 해주고 싶은데, 혹 제주어를 견학할 수 있는 곳이나, 제주어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있을까요? (○○○, 40대, 여, 제주)

답 저희 제주학센터에서 제주어 관련 견학을 하실 수는 없으나, 도서관에서 제주어와 관련된 서적을 접해보실 수 있으며, 제주어 관련 단체 등에서 제주어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제주교육박물관에서도 제주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12

문 차귀도에서 본 해녀콩에 관한 이야기인데, 해녀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콩을 삶아 먹고 낙태를 했다 하여, KBS 드라마 '어멍의 바당'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오○○, 50대, 남, 제주)

답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

문 안녕하세요, 제주어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입니다. 혹시 표준어를 제주어로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이 있나요?

(○○○, 60대, 남, 제주)

답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을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14

문 제주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제주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 40대, 남, 도외)

답 현재 진행하는 제주어 강좌는 없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등에서 제주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 문의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15

문 제주어 어휘 등 자료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정○○, 50대, 여, 도외)

답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 있는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이라는 책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6

문 제주어사전은 구입이 가능한가요? (○○○, 40대, 남, 제주)

답 제주어사전은 비매품으로 구입은 불가능하며,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의 제주어 게시판에서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ㄱ

가가비 29
가개비 32
가게비 29
가벳도롱ᄒᆞ다 73
가셍이 32
가시낭 20
감수광 37
감저 111
감태 16
개개비 32
개고리 32
개꽝낭 40
개똥차반지 62
개창 70
개창깍 70
갯것디 91
거믜 31
거시다 65
걸어 뎅기멍 46
것 54
게드레기 61
게들레기 61
게미 31
게에미 31
게여미 31
게염지 31
겝지그랑하다 75
겝지근ᄒᆞ다 75
경 91
계랄 71
고견 26, 103
고고리 36
고넹이 47
고노쿨 107
고레 32
고레사니 32
고렴 26, 70, 103
고애 26
고장 45
고장 피다 24
고쪄 사라 61
고쪄 삽서 61
고쳐 사라 61
고쳐 삽서 61
고칩서 61
곤 24
곤밥 63
골로로 15
골호로 15
곱닥허다 27
곱닥ᄒᆞᆫ 24
곱지다 24
곳 피다 24
공장 걸다 73
공재 103
공젱이 73
괄세 79
구둠 17, 18
구룸 32
구살 55
굴 14
궤 14
궤견 26
궤다 27
궤야 14
궤우다 27
궵다 27
귀인닥사니 72
귄다사니 72
기드레기 61
까꾸리 55
깍 32, 70
꺼장 33
꺼지 33
꼼짝 말라 53
꼿 피다 24
꿈 꿈수다 56
꿈 봄수다 55
꿈보다 55
ᄀᆞ슬 21, 88
ᄀᆞ실 21, 88
ᄀᆞ을 21
ᄀᆞ졍 뎅기다 46
ᄀᆞ찌 17, 28
ᄀᆞ치 17, 28
ᄀᆞ치 가게 46
ᄀᆞᆫ다 80
ᄀᆞᆯ개비 32
ᄀᆞᆯ게비 29
ᄀᆞᆸ갈르다 38
ᄀᆞᆺ사 53, 54
ᄁᆞ장 33
ᄁᆞ지 33

ㄴ

나록씨 66
나봅서 98
난간 112
날봅서 98
납 32
낫 112
낭그늘 99
낭막뎅이 53

너네 18
너네덜 18
너믜 82
너미 82
너이 98
널착 73, 74
넘은봄 61
노고록ᄒᆞ게 105
노고록ᄒᆞ다 113
놈의집살이 61
눈 55
느 18, 54
느네 18
느네덜 18
느량 이시쿠다 57
늬찻날 100
니 18
ᄂᆞ단짝 14, 19
ᄂᆞ단쪽 18
ᄂᆞ단착 14, 19
ᄂᆞ단펜 19
ᄂᆞ람지 64
ᄂᆞ레미 65
ᄂᆞᆸ뜨다 38

ㄷ

다솟 98
다솟찻날 100
답다니 66
당어멍 25
대바지 98
대베기 98
대우리 36
데끼지 맙서 52
도다 110
도라 110
도새기 54, 103
도야지 103
돌코롬ᄒᆞ다 26
돔박고장 24
돗 102, 109
돗줄레 102
돗통시 54
동고령 102
두린아의 16
두린아이 16
두린아희 16
두지 39
둘찻날 100
뒈야지 103
뒷무뚱 60
드십서 28
들렁 나가다 46
들어글라 53
듸 33
디 33
뚜럼 99
ᄃᆞ레 20
ᄃᆞ렛줄 20
ᄃᆞ로 67
ᄃᆞ르 67
돌다 24
돌랑돌랑ᄒᆞ다 60
돌랑이다 60
돌리다 24
돌아지다 29
돌코롬ᄒᆞ고 46
ᄯᅳ시 54

ㄹ

레 33

ㅁ

마농적 107
마씀 85
마씨 85
마씸 70
만이 31
말다 17
머들 68
머쿠슬낭 15
머쿠실낭 15
먹구슬낭 15
먹어 보젠마씨 45
먹어 보젠마씸 45
먹어 보쿠과 45
먹읍서 28
먹쿠슬낭 15
먹쿠실낭 15
메 29
멕 73
멘짝ᄒᆞ다 22
멜라지다 30
멜싸지다 30
멤쉐 90
멩 110
모다지난 86
모드락모드락 104
모저 22
모ᄌᆞ 22
모쿠슬낭 15
모쿠실낭 15
몬지 17, 18

몰레왓 31
무뚱 83
무시거 23
무신거 23
무신거 허멘 54
무신거커니 50
문둥 83
문세 101
문트멍 26
물꾸럭 55
물허벅 54
미 29
미녕옷 39
미르세 34
미릇 34
밀낭퍼렝이 22
밀낭페렝이 22
밀찍페렝이 22
ᄆᆞ루 66
ᄆᆞ슬 14
ᄆᆞ실 14
ᄆᆞ심 17
ᄆᆞ을 14
ᄆᆞ음 17
ᄆᆞ작풀 36
몬 28, 101
몬들락ᄒᆞ다 75
몬딱 28, 86, 105
몬저 35
몬처 35
몬첨 35
몰른디 54
몰ᄆᆞ작쿨 36
몰쿠실낭 15
몰쿠지낭 15
몸 17
ᄆᆞᆼ쿠지낭 15

ㅂ

바깟 21
바람ᄆᆞ루 68
바레다 34, 60
바레여보다 60
바우 32
바위 32
박 21
박거리 21
반찬ᄆᆞ루 67
반참ᄆᆞ루 67
발라 74
밧 21, 31
밧거리 21
밧캐 88
백돌레 70
백시리 71
백케 90
버섯 19
버슷 19
버염 32
베꼇 21
베끗디 53
베끼 21
베려보다 60
베리다 60
베미 32
베염 32
베지근하다 36, 64
베지근허다 106
벤벵뒤굴 90
벤조롱ᄒᆞ다 112
벨롱벨롱 20
벨아벨 39
복닥 64
봅서 98
부떠 33
부텀 33
북닥낭 40
불껑 40
불란듸 31
불란지 31
불치 40
불한듸 31
불한지 31
비주기낭 40
빈떡 106
빈찍빈찍 20
빌레 63
빗 80
빗창 55
빙떡 106
ᄇᆞ랑지다 74, 113
ᄇᆞ레다 34, 60
ᄇᆞ레보다 60
ᄇᆞ레여보다 60
ᄇᆞ름ᄆᆞ루 68

ㅅ

사랑스런 ᄒᆞ를 50
사름 33, 47, 48, 113
사발ᄂᆞ물 16
산뒤씨 66
살 78
살레 가다 29

삼춘 16, 85
상고지 25, 102
상방 73, 74
상에 32
상의 32
생이 32
서 33
서넝허넝하다 62
서늉 숭틀엉 47
서이 98
성 48
세미 94
세미양 94
세큼지다 26
세큼허다 26
셋 89
소도리 36
속 67
속다 111
속ᄃᆞ르 67
속암수다 81
속앗수다 86, 104
수과 84
수광 84
수눌음 74
수눎 74
수ᄆᆞ루 66
수좁다 23
수집다 23
숙대낭 20, 94
숨비민 55
숭기다 24
숭키다 24
쉐 81
쉼팡 99
스ᄆᆞ르 66
슬프다 17
싀상 23
싯찻날 100
시녜이 54
시상 23
식게 41, 95
실프다 17, 112
심 내라 32
심 냅서 32
싯다 89
싯당 갑서 104
써넝써넝허다 62
쒜 81
씨감저 23
씨암톡 83
씨원허다 62
씨지슬 23
씨지실 23
ᄉᆞ랑 24
ᄉᆞ랑허다 27
ᄉᆞ을 92
쏠 78

ㅇ

아덜 92
아도록ᄒᆞ다 19, 26, 66
아멩헤도 51
아방 51
아시날 100
아옵찻날 100
아의 15
아이 15
아희 15
안캐 88
앗당주라 54
앞사다 34
앞ᄉᆞ다 34
양 98
어글락다글락ᄒᆞᆫ 47
어두ᄆᆞ루 68
언덕 우의 25
엇다 89
엇수다 92
엇우다 92
엉덕 우의 25
엉덕 우틔 25
여ᄌᆞ 48
열찻날 100
엿날 28
-영 75
영 90
예 98
오꼿 111
오널 51
오돌또기 69
오돌똑 69
오른짝 19
오른착 14, 19
오른펜 19
오름 29
오몽허지 마라 57
오소록ᄒᆞ다 39, 66
오시록ᄒᆞ다 66
옵데강 86
요조금 61
와살풍 38
와시냐 53
와자자 25

와자자허다 25
요지금 61
우 24
우의 24
우이 24
우틔 24
우티 24
울다 100
울랑울랑 38
울엉 69, 100
원셍이 32
원어멍 25
원ᄒᆞ다 34
웨롭다 30
웨할망 26
웨할머니 26
웨할무니 26
웬짝 14, 19
웬쪽 18
웬착 14, 19
웬펜 19
읏다 89
이 33
이녁 18, 98, 100
이레 51
이봅서 98
이시다 89
일곱찻날 100
잇다 89
ᄋᆞ답 98
ᄋᆞ답찻날 100
ᄋᆞ름 21
ᄋᆞ망지다 88, 90
ᄋᆞ물 68
ᄋᆞᄉᆞᆺ 98
ᄋᆞᄉᆞᆺ찻날 100
올다 53, 54

ㅈ

자기 18
자리왓 31
자ᄉᆞ지 71
자조 31
잔나비 32
잡앙데껌수다 105
잣다 73
저들다 30
저슬 21, 24
저실 21, 24
저을 21
적 107
접 28
정 90
정기떡 106
재게 48
제 28
제ᄉᆞ 41
제주 18
좋은 ᄒᆞ루 뒈십서양 44
주왁주왁허다 37
중산간 72
중캐 88
즐거웁디가 50
즐거웁디강 50
지 98
지꺼지지양 86
지녁 18, 98
지드렴시라 55
지드리다 23
지들리다 23
지샛개 64
지슬 23
지실 23, 95
지실이섬 95
지주 18
질(길) 29
질(제일) 55
집이 싯젠 45
쪼끌락하다 65
ᄌᆞ끗듸 57
ᄌᆞ들다 30
ᄌᆞ영게 49
ᄌᆞ전게 49
ᄌᆞ조 31
ᄌᆞ주 31
ᄌᆞ지 31
ᄌᆞ청비 52
존나비 32
존내비 32
좀녀 16
좀녜 17
좀수 17

ㅊ

척박ᄒᆞᆫ 땅 19
천천이 21
첫찻날 100
청감쥐 71
초기 19
–치록 51
친어멍 25
친정어멍 25
칭 113

ᄎᆞ낭 20
ᄎᆞ냑 55
촌촌이 21
촐구덕 40
촘말로 37

ㅋ

케 68
켓담 68
코삿허다 87
코삿ᄒᆞ다 113
코시롱허다 37
쿠다 34
쿰은 86
큰년 15
큰똘 15
큰큰ᄒᆞᆫ 23
ᄏᆞ콜허다 28
ᄏᆞ콜ᄒᆞ다 28

ㅌ

타다 54
탕탕 38
테다 55
테역 102
튼내다 73, 74
톨랑톨랑 38
톨랑톨랑ᄒᆞ다 60

ㅍ

팡 69
퍼뜰퍼뜰 37
펀직펀직 20
페렝이 22
펜백낭 20
펜펜ᄒᆞ다 22
포근ᄒᆞ다 19
핀직핀직 20

ㅎ

하르방 110
하영 47, 49, 54, 87, 104
할망 103, 110
항고지 25, 102
해녀콩 119
행복ᄒᆞ다 27
허멩이 문서 84
허였다 89
헐다 78
헐어가다 78
헤 49
헤불다 85
헤천 101
헷저 86
호미 111
호박적 107
혼차 21
홍실 24
환영헴수다 46
환영ᄒᆞ염수다 46
황고지 25, 102
황오지 103
황우지 103
흑통 67
흘쳠수다 105
ᄒᆞ꼼 4, 55, 91
ᄒᆞ나 98
ᄒᆞ루 44, 50
ᄒᆞ를 50
ᄒᆞ쏠 54
ᄒᆞ젠 ᄒᆞ영 44
ᄒᆞᆫ 바쿠 49
ᄒᆞᆫ 잔 ᄒᆞ레 가게마씸 50
ᄒᆞᆫ 잔 ᄒᆞ레 갑주 50
ᄒᆞᆫ듸 17, 28, 82, 83
ᄒᆞᆫ듸 모영 99
ᄒᆞᆫ듸 무껑 107
ᄒᆞᆫ디 17, 28, 104
ᄒᆞᆫ디 모영 99
ᄒᆞᆫ디허난 16
ᄒᆞᆫ디허연 16
ᄒᆞᆫ번 먹어 봅서 45
ᄒᆞᆫ저옵서예 116
홈끼 17

제주어, 궁금허거나 몰른 거 싯건 들어봅서양

제주어종합상담실이 뭔가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제주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와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제주어 전문 상담 창구입니다.

<제주어종합상담실> **들어봅서** 전화는 소중한 제주어가 누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어,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 있거든
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이용하나요?**

주요 업무 제주어 관련 종합 상담
제주어 종합 상담 자료집 발간 등

상담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상담 방법
- 상담 전화 **들어봅서 ☎ 1811-0515**
- 전자우편 jejueo0515@hanmail.net

연구 수행

◎ 연구진

- 연구책임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공동연구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연구보조 서수빈·현혜림(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 자문위원

-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행정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